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88호 【루계 제25962호】 주체107(2018)년 3월 29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나로드바 포르마뜨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20일에 진행되였다.

출판사 사장 볼루쟈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인이 공인하는 위대한 혁명가, 걸출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을 출판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오랜 기간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의 로작들을 출판해오는 과정에 그분들을 더욱 흠모하게 되였으며 조선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였다.

조선인민이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를 변함없이 수호하고 강국건설위업을 반드시 실현하리라고 확신한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에티오피아 평진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21일에 진행되였다.

출판사 편집부장은 김일성주석은 세계가 공인하는 위인이시다, 위인을 칭송하는 도서들을 발행하는것은 우리 출판사의 자랑이다고 말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쟁로병들은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창조한 귀중한 혁명선배들이다**》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벌가리아 자라바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나라와 인민을 위한 길에 바치신 위대한 한평생

여러 나라와 지역의 인터네트잡지, 홈페지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과 영상사진문헌들을 모시고 《김정일, 그이의 탄생과 세계》, 《김정일령도자의 위대한 생애》, 《김정일화》, 《인민의 령도자 김정일》, 《위인의 모습》 등의 제목들로 특집하고 글들을 게재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잡지 《땡쉬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언제나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를 이끄신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이시라고 칭송하면서 그이께서 열화같은 인민사랑을 지니시고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신데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력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선군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불패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조선의 정치사상적위력은 백방으로 강화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들인 《그리몬 쁘레스찌쥬》, 《그리몬-뻬르쏘날》과 로씨야련방공산당 노보씨비르스크주위원회, 이르꾸쯔크주 동부씨비리출판사, 이딸리아변증법적유물론무신론자들의 조직, 자주와 주권을 위한 선군사상연구 이딸리아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조선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와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을 깡그리 바치신데 대하여 강조하고 절세위인께서 지니신 한없이 소박하고 겸손하며 소탈한 인민적풍모와 그이의 고결한 생애를 관통하는 헌신철학, 태양의 꽃 김정일화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경위를 소개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뽈스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탐구를 위한 국제친선발기, 브라질선군정치연구쎈터,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사상리론업적과 선군령도업적을 찬양하고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관과 그이의 령장으로서의 천품에 매혹된 외국인사들의 반향을 전하였다.

##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

###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일성대원수각하 탄생일경축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준비위원회가 7일 아부자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다미안 오그본나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소개하는 좌담회,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프랑스준비위원회가 9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베누아 께네데이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에 즈음하여 업적토론회, 강연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가 12일 알제리청년총동맹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청년총동맹 위원장 무함마드 누와르 알 라비으 까바일리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에 즈음하여 경축모임,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경축 준비위원회가 14일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련대성그루빠 책임자 메베제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보도물을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며 토론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파키스탄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4일 카라치에서 진행되였다.

파키스탄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결성식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사회주의조선의 강화발전과 인민의 행복, 나라의 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희세의 영웅, 탁월한 정치가로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은 또 한분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는 조선인민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하였다.

결성식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또한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파키스탄국회 상원 의원 카쉬프 우 레호만이, 부위원장으로 전 국회 상원 의원 이마르 지트가, 서기장으로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 자베드 안싸리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가 16일 도이췰란드반제연단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반제연단 위원장 미하엘 코트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국제준비위원회가 18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총서기 미하일 빤첸코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련합준비위원회를 19일 쏘련공산당산하 정당, 단체들이 결성하였다.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혁명과 혁명공산당을 위하여》 국제사회련합 위원장인 모즈고보이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는 끼르기즈스딴공산당, 로씨야공산주의로동자당,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아제르바이잔공산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의 인사들을 망라하고있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우간다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9일 캄팔라에서 진행되였다.

우간다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한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2부수상 키룬다 키베진자가 선출되였다.

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칭송하고 태양절에 즈음하여 절세위인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출판보도물을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며 토론회, 강연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진행할데 대해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천만군민의 격정과 환희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친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소식에 접한 각계의 반향

### 크나큰 영광 길이 빛내이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조국에 돌아오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온 나라가 크나큰 격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은 조중 두 나라 선대령도자들에 의하여 마련된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공동투쟁에서 맺어진 친선적인 조중관계를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우리 혁명과 인류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조중친선은 두 나라 선대령도자들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이며 공동의 재부이다. 선대령도자들께서는 조중친선의 뿌리를 몸소 마련하시고 품을 들여 소중히 가꾸어오시였다.

두 나라 당과 인민은 장구한 기간 정의와 평화,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서로 피와 생명을 바쳐가며 긴밀히 지지협조해왔다.

이 나날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잇닿아있는 형제적이웃인 두 나라 인민의 행복과 미래에 있어서 단결과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것인가를 깊이 새기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이번 방문은 선대수령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공동의 투쟁에서 맺어지고 력사의 온갖 돌풍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지켜온 조중친선관계를 대를 이어 귀중히 여기고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발전시키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과시한 력사적사변이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진선에서 일대 진상기를 펼쳐주시고 오늘은 머나먼 장정으로 조중친선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외활동소식에 접한 우리 인민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정에 휩싸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당과 조국의 대외적권위와 존엄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것이며 우리 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의 높은 권위로 혁명하는 긍지높은 인민으로 될것이다.

우리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갈것이다.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 휘

###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소식에 접한 우리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커다란 감격과 흥분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다.

지금 우리모두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륭성번영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으며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다함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심장에 새겨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강원도인민들이 사회주의강국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제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보폭을 따라세우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달려나가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강원도 인민들이 자리잡고있다.

도당위원회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새겨안고 그이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이와 함께 당을 따르는 길에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위대한 시대정신의 창조자들답게 만리마대진군의 앞장에서 더 힘차게, 더 기세충천하게 전진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겠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대규모발전소들을 일떠세운 그 기백으로 지금 건설중에 있는 군민발전소들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우리 도를 전기가 넘쳐나는 도로 만들겠다.

또한 원산지구를 도시형성의 본보기, 세계적인 관광지로 전변시키려는 당의 웅대한 구상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도안의 당원들과 인민들이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의 역할에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도당위원회일군들부터가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감으로써 도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겠다. 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데서 우리 도가 전국의 맨 앞장에 서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강원도당위원회 위원장 박 정 남

###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긍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에 접한 우리 내각일군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크나큰 격정과 흥분으로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번에 력사적인 첫 중국방문의 길에 오르시여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새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더욱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진행하시였다.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이 력사적인 첫 중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열렬히 환영하고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 같으신 그이의 인품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주체조선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조중친선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불멸의 공헌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중국방문을 통하여 우리는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긍지와 영광을 다시한번 가슴뿌듯이 느끼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우리의 존엄과 승리, 영광과 행복이 있고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것은 우리모두의 가슴에 억척같이 자리잡고있는 신념이다.

우리 일군들은 지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중친선의 길에 쌓아올리신 업적을 빛내이며 경제조직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는 대중속에 들어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진공적으로 벌리겠다. 온 나라 인민의 피끓는 심장속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이 뜨겁게 맥박치도록 하며 대고조전투장들에서 당정책결사관철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사업을 책임진 혁명의 지휘성원답게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중국방문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높은 사업성과로 빛내어나가겠다.

내각부총리 동 정 호

### 불멸의 그 업적을 자랑찬 과학교육성과로

지금 온 룡남산이 이를할수 없는 기쁨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다.

자나깨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며 그이의 혁명활동소식을 기다리던 우리들이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시여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시고 사회주의위업수행과 세계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소식에 접하게 되였으니 이 위대한 사변앞에서 누군들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진리로 뭉쳐진 조선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의 현지지도의 길에 새겨가시던 그 위대한 애국애민의 자욱을 광활한 중화대지에로 이어가시며 력사에 길이 빛날 공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르며 우리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체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분을 높이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가에 대하여 다시한번 심장으로 절감하게 된다.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오른다.

우리 조국의 존엄을 세계만방에 떨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첫 외국방문소식은 우리들에게 최후승리의 신심을 백배해주고있다.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혁명의 핵심골간, 창조형인재육성에서 비약을 일으키자. 하여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나가는데서 제일기수, 선도자가 되자.

이것이 오늘 룡남산에서 우리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모두가 다시한번 굳게 다지는 한결같은 맹세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태 형 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소식을 커다란 격정속에 접하는 철도성 정치국 일군들 본사기자 리 명 남 찍음

### 백두대지에 일심단결의 성새를

백두대지에 뜨거운 흠모의 파도가 세차게 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216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지금 크나큰 환희와 격정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혁명의 령도자,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훌륭히 갖추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고있으며 이에 대하여 세상사람들도 인정하며 탄복하고있습니다.》**

외국방문의 첫걸음으로 자기 나라를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국의 당과 국가지도간부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지성을 기울여 극진히 환대한 사실은 우리 원수님께서 지니신 국제적권위가 얼마나 높은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을 받고계시는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우리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가슴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였다.

조중친선의 년대기우에 영원불멸할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백두대지에서 비약의 폭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겠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활활 지펴올리겠다.

대중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어번지게 하는 화선식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 한편 단위별로 그리고 단계별, 공정별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돌격대원들의 발걸음에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겠다.

그리하여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 세상에 둘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고 백두대지에 일심단결의 성새를 더욱 억척같이 쌓아올리겠다.

216사단 정치부장 김 영 환

# 일군들의 충정심을 담보하는 실력

누구나 아는것만큼, 능력이 있는것만큼 일하기마련이다.

일군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를 어떻게 받들고 어떻게 일하는가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좌우된다. 주관적욕망이나 열성만으로는 어떤 일도 잘할수 없으며 사업에서 실적을 낼수 없는것이 실력전의 시대인 오늘의 현실이다. 력사의 온갖 풍파를 헤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오늘 우리 혁명은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로 하여금 높은 지식수준과 능력을 겸비한 실력가가 될것을 바라고있다.

일군들의 실력문제는 충정심을 담보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 사업을 지도하여야 하는 일군들에게 있어서 높은 정치적식견과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은 능력있는 일군으로 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일군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려면 실력가가 되여야 한다. 이는 시대의 요구이다.

혁명의 이런 원리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모두가 당의 의도에 정통하고 경제지식과 기술지식, 문화적소양도 있는 실력가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도록 걸음걸음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의 손길로 이끌어주시였다.

* *

실력이 없이는 누구도 당에 충정다할수 없다는것, 실력, 이것은 충정심의 기본담보이라는것.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듯 일군들의 실력문제를 중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실력을 높이는것이 당과 혁명의 절박한 요구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그 어느때보다도 자기의 자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근기있게 벌려야 합니다.》**

위대한 혁명철학, 정치철학이 있고 혁명과 건설의 심오한 원리와 리론, 당의 구상과 의도가 담겨져있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야말로 일군들의 첫째가는 실력이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사업한다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능란하게 풀수 있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 로선과 정책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체득하며 그것을 실지사업에 얼마나 정확히 구현하는가 하는데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애쓴다고 하지만 당의 사상과 정책에 대한 인식에서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피상적이고 독경식이며 실무적인 현상을 념두에 두고 하시는 가르치심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은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일상적으로 깊이 학습하여 자기의 사상리론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그래야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들을 원리적으로, 사상리론적으로 연구체득할수 있고 모든 사업을 당의 사상과 의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조직전개할수 있다고 그루를 박아 강조하시였다.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는것, 이는 일군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제2의 실력이다. 일군들이 정보산업시대의 발전추세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며 정보기술을 배우고 콤퓨터를 다룰줄 알아야 한다는것, 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추세도 알아야 하고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적개념도 알아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경제부문 일군들은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경제사업을 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최신과학기술을 애써 배우며 자기의 과학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당일군들도 과학기술지식을 가져야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수 있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 원만히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현대과학기술을 아는 유식하고 유능한 일군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자기 부문의 사업에 정통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는것은 일군들의 실력의 전제조건이다. 아는것이 많고 정서가 풍부할수록 현실을 폭넓고 깊이있게 파악할수 있고 사업을 활력있게, 창발적으로 전개할수 있으며 인간적으로도 고상한 품성을 지닐수 있다. 자기 부문의 사업에서는 모르는것이 없고 막히는데가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는것이 일군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요구였다.

일군들의 실력은 곧 창조적능력이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무엇인가 이바지하자면 머리를 쓰고 애를 써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이 낡은것이고 어느것이 새것인가를 잘 알고 부단히 탐구하는 창조적인 립장을 취하여야 한다.

언제인가 일부 일군들속에서 창조적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의 실력과 창조적인 사업기풍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깨우쳐주시면서 이렇게 지적하시였다.

빈 머리에서 창발성이 나올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동무들이 자기 맡은 부문의 지식이 있어야 일하는 과정에 지금은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것 같다든가, 이러한 체계가 맞지 않으니 실정에 맞게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한다는 식으로 창발적인 의견과 방도를 제기할수 있는것이고 또 그래야 당의 방침을 더 잘 관철할수 있는것이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사업을 대담하게 창조적으로 벌려나가지 못하는 일군들을 보면 례외없이 실력이 딸리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일군들이 일하는 본새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중의 창발적인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을뿐아니라 사람들이 제기하는 창발적인 의견을 당의 방침과 대치시키는 허무니없는 일까지 하고있다고 하시였다.

열성 하나만 가지고 일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아무리 당에 충정하려고 하여도 능력이 없으면 당의 의도대로 사업을 벌려나갈수 없다. 당에 충정다하려면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개력,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의 가슴에 새겨주신 고귀한 지침이였다.

일군들의 실력을 높이는 기본방도는 학습과 혁명실천이다. 일군들은 모든것을 다 알아야 하며 알기 위하여 꾸준히 배워야 한다.

타고난 실력가는 없다. 실력을 높이는 묘술은 꾸준하고 진지한 노력이다. 지식수준이 높은 일군이나 낮은 일군이나, 대학공부를 한 일군이나 못한 일군이나 나이와 경력,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누구나 애써 배워야 한다.

사람의 창조적능력에는 한계가 없는것만큼 일군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계속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였다.

언제인가 대상기관에 나간 한 당일군이 그 단위에서 쓰는 전문술어를 몰라 체면깎은 일을 당한적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로서는 그만한것은 알고있어야 한다고, 몰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그것은 큰 착오이라고, 그것은 동무가 일군이기때문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절절하신 음성이 그 일군의 폐부에 뜨겁게 흘러들었다.

당일군들이 자기 사업을 원만하고 로숙하게 하자면 누구보다도 많은것을 알고있어야 하며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당일군들은 팔방미인이 되여야 한다. …

지식의 령역에 있어서나 사업방법과 작풍, 지도능력과 활동력에 있어서 어떤 과업이 제기되여도 능히 감당할수 있는 높은 수준에 이르는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요구하신 실력의 높이였다. 또 그런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신 리상적인 일군이다.

일군들의 사업능력에서 중요한것은 대중을 알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능력이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대중을 가르칠뿐아니라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의 친근한 동지가 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심부름군이 되여야 하는 우리 일군들.

높은 실력을 지닌 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을 신축성있게 할뿐아니라 속에 든것이 많은 그런 일군들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쉽게 열기마련이다. 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일군, 경제일군 할것없이 모든 일군들이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도 할줄 알고 대중을 묶어세우고 대중의 무진장한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조직적수완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이에 대하여 깊이 새겨보게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어느해인가 5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의 성장을 두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하시면서 못내 대견해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누구나 자기는 아직 백지나 다름없다는 자각을 가지고 책도 더 많이 읽고 대중속에서도 배우면서 지식의 탑을 착실하게 쌓아나갈데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새겨주시였다.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면 사람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잘할수 없다. 작풍만 좋으면 군중과 헤쳐들수 있고 군중과의 사업을 원만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사람과의 사업은 직업과 지식정도, 생활경위와 나이가 서로 다른 각이한 사람들을 대상하는 사업인것만큼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잘하자면 다방면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공장에 나가 로동자들과 사업을 하자면 공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농촌에 나가 농민들과 사업을 하자면 농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문화예술기관에 나가 작가, 예술인들과 사업을 하자면 문학과 예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는 일군이 문학과 예술을 모르면 작가, 예술인들의 생활과 심리를 리해할수 없고 그들의 내면세계에 깊이 들어갈수 없다. …

직위나 간판을 가지고서는 사업에서 권위를 세울수 없다. 당일군의 권위는 간판이나 직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실력이 있어야 옳은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사리에 맞게 일을 처리할수 있으며 말을 한마디 하여도 날이 서고 당적권위가 보장될수 있다. …

일군들모두가 실력의 탑을 높이 쌓아 박식해질 때만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위해줄수 있으며 우리 당의 높은 권위를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깨우쳐주시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사람이 부유한가 빈곤한가 하는것은 재산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있는가 하는데 있다.

가장 우월한 교육체계가 서있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정연한 학습체계가 세워져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노력하면 얼마든지 배울수 있고 실력을 높일수 있다. 문제는 독학가, 정열가가 되려는 각오에 달려있다.

책은 말없는 스승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일군들의 자질을 높여주는 사업을 얼마나 중시하시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언제인가 한 일군이 낡은 가방을 들고다니는것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서들이 한가득 들어찬 새 가방을 그에게 안겨주시였다.

일군들이 욕망만 가지고는 당에서 의도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바로해나갈수 없다. 아는것이 많은 사람은 사업과 생활도 신축성있게 하며 품성도 겸손한 법이다. 실력을 높이자면 책을 많이 보아야 한다. 누구나 손에 책을 들고다녀야 하지만 특히 책임일군들인 경우에는 한시도 손에서 책을 놓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일군에게 책가방을 안겨주시면서 하신 간곡한 당부였다.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것을 아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분발하게 되고 알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일이 바빠서 책을 보지 못한다고 하거나 시간이 있을 때 책을 보겠다고 하는것은 결국 책을 보지 않겠다는 소리나 같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을 보면 책읽는 시간이 따로 없다. 짬만 있으면 책을 읽는다. 지금은 책을 읽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을뿐아니라 뒤떨어진 사람으로 될수 있다. 3일만 책을 읽지 않아도 벌써 말을 하는데 씨가 먹지 않는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독서에 의의를 부여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목적지향성있게 읽어야 하며 심사숙고하면서 주의깊게 읽어야 한다. 책을 읽은 다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분석도 해보고 사색도 해보는 버릇을 붙이는것이 좋다. 책을 본 다음에는 한가지지식이라도 꼭 적어두는 버릇을 붙여야 한다. …

그 하나하나가 그 어떤 값진 물건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재부인 책, 그 모든 책들은 특출한 지식있고 능력있는 일군들로 혁명전사들을 성장시켜주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우리 일군들의 지식과 능력을 한치한치 쌓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아는것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직권을 가지고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게 되며 무슨 일이나 똑똑한 방법론도 과학적타산도 없이 망탕 처리하여 사업을 망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한다. 사상적신념과 의지도 과학지식과 능력에 의하여 튼튼히 안받침되지 못하면 난관앞에서 흔들리게 되고 패배주의와 소극성, 보수주의에 빠지게 된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은 말로만 당의 신임에 충정으로 보답할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당을 받들어야 한다고, 실력이 없으면 진심으로 당에 충정다할수 없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이 실력이 낮으면 해당 부문, 단위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아니라 오히려 전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수 있다.

오늘날 일군들의 실력문제는 이렇게 심각하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성과여부가 자신들의 수준에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하며 피타게 노력하여 완벽한 실력을 소유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이다.

명장밑에는 약졸이 없듯이 절세의 위인들의 슬하에서 쟁쟁한 실력가들로 성장한 우리 일군들의 무성한 대오로 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줄기차게 전진하는것이며 성스러운 그 길에서 위대한 우리 당의 위력은 더욱 힘있게 떨쳐질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 애국자, 숭고한 그 부름속에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부강할 조국의 래일을 가꾸어가는 천만군민의 가슴에는 우리 시대의 애국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인민의 충복이며 애국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전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양어장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양어장의 실태를 보여주는 전경도와 형성도앞에서 양어전망계획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앞으로 새끼물고기를 일정하게 키워 그물우리와 호수에 놓아기르는 문제, 호수물이 흘러내려 바다와 합쳐지는 곳에 민물칠게서식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키운 새끼참게를 호수에 넣어주는 문제, 알을 쓸기 위하여 올라오는 물고기들을 잡아 알받이를 한 다음 엄지물고기들은 인민들에게 공급하고 알에서 깨운 새끼물고기들은 놓아주었다가 몇년후에 엄지가 되여 올라올 때 또다시 잡는 문제…

신수가 나서 양어전망계획을 위대한 장군님께 설명해드리는 일군의 얼굴에는 결심하면 할수 있다는 신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전망계획을 높이 세운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이어 양어장의 여러곳을 일일이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수에 자연먹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감탕이 계속 쌓이고있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호수에는 떠살이생물과 떠살이식물, 잔고기가 많을뿐아니라 감탕속에는 유기물질도 많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그것이야말로 대단한 자연먹이다, 이렇게 자연먹이조건이 풍부한 곳이 다른데는 없을것이다, 이런 호수에서 양어를 그물우리식으로도 하고 놓아기르는 방법으로도 하도록 한것이야말로 기발한 착상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누가 착상하였는지 자연먹이로 양어를 잘해보려는 노력과 정열이 대단하다고 치하하시였다.

물고기떼 욱실거릴 이곳 양어장의 앞날을 그려보시는가 만면에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자기 고장의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쓰고 착상을 하며 정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세찬 격정으로 끓어올랐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적으나마 기쁨을 드리는것이 응당한 본분이라는 자각으로 지금껏 지방의 특성에 맞는 양어에 전심전력해온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였다. 하지만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애국적인 소행으로 된다고까지는 생각해본적이 없는 그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경건히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애국자의 숭고한 의미가 더욱더 뜨겁게 새겨지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에 적극 이바지할 불같은 일념을 안고 자기 고장의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해 혁신적으로 사고하고 기발하게 착상하며 정열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애국자임을.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뚜렷한 삶의 자욱을 남기고 실적을 내는 바로 이런 애국자들을 오늘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림정호

# 한없이 다심한 손길

우리 혁명전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령도사의 갈피마다에는 일군들 한사람한사람을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수없이 새겨져있다.

아래에 전하는 사연도 그런 하많은 이야기들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언제인가 동해안의 한 군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당의 책임일군과 함께 어느 한 식당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식당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당의 책임일군에게 동무가 그 불편한 몸으로 한개 군을 맡아보느라고 언제 한번 때식이나 제때에 들었겠는가, 오늘은 나와 마주앉아서 점심식사나 하자고 하시며 식탁으로 이끄시였다.

너무도 뜻밖인지라 일군의 눈굽에 뜨거운것이 고이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들여온 국수그릇을 그 일군의 앞에 먼저 놓아주시였다.

한없이 인자하신 풍모에 일군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일을 쓰게 못한 자책감이 가슴을 허비였던것이다.

일군의 마음을 헤아리신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즐거운 이야기로 그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그가 국수를 거의다 들었을 때에는 한그릇을 더 청하시여 딴 사람은 몰라도 동무는 한그릇 더 해야 한다고, 어서 많이 들라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자기앞에 놓여진 국수그릇을 바라보던 일군은 그만 목이 꽉 메여올랐다.

그러는 그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 부상당하였는가, 전쟁때 무슨 직무에서 사업했는가, 그때 나이는 몇살이였는가에 대하여 다정한 어조로 물으시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1살에 중대장을 하였으니 그때에는 무서운것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밀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육체적으로 로쇠될수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로쇠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야 어버이수령님께 영원히 충정다할수 있다고 간곡히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가 오랜 기간 현 직무에서 사업한다는것을 아시고는 공로자라고 거듭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이의 분에 넘치는 치하를 받아안으며 일군은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은 군대로 말하면 련대장과 같다고 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자기의 위치와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갈것을 바라시는 하늘같은 믿음과 크나큰 기대가 담긴 가르치심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렇듯 한량없는 사랑과 다심한 손길아래 혁명의 미더운 지휘성원으로 값높은 생을 빛내인 일군들이 정녕 그 얼마인지 모른다.

본사기자 전광남

# 과학기술보급실을 실속있게 운영하기 위한 요구

지금 온 나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기관들 그 어디에나 과학기술보급실, 전자도서실이 꾸려지고 콤퓨터망을 통한 과학기술보급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전사회적으로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기풍이 서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일이다.

당의 과학중시로선을 받드는데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는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그 운영을 계획화, 정상화하여 과학기술보급실이 실지 은을 내게 하는것이다.

우리 당이 매 단위들에 과학기술보급기지를 잘 꾸려놓고 과학기술보급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는것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지식형의 인재들로 준비시켜 그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서 창조적능력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모든 단위들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을 실속있게,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 당의 의도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도록 하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과학기술보급실을 실속있게 운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무엇인가.

－우선 과학기술보급실운영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해나가는것이다.

과학기술보급실은 결코 제한된 기술자, 기능공들만 리용하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것저것 아무것이나 열람하는 장소로 되여서는 안된다.

우리 당은 과학기술보급실이 종업원들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을 전수하는 과학기술보급거점, 생산자대중을 현대과학기술로 무장시키고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것을 바라고있다. 온 나라의 과학기술보급실들에는 모든 근로자들을 기술형의 인간, 지식형의 인간으로 키워 그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서 발명가, 창의고안명수, 혁혁한 위훈의 창조자가 되고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게 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과 웅심깊은 사랑이 깃들어있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해나가자면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운영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직장과 단위별로, 매월과 주, 날자와 시간별로 과학기술보급실운영계획을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모든 종업원들이 과학기술보급실을 일상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근로자들이 자기 부문, 자기 직종에 맞는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단위들에서는 종업원들에게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통하여 수행해야 할 학습과제도 명확히 주며 그에 대한 인식정형을 정상적으로 판정하고 총화하는 사업도 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근로자들이 과학기술보급실을 리용하여 실지 자기 사업에 써먹을수 있는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할수 있으며 기술수준과 기능급수도 높일수 있다. 모든 단위들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보다 실속있게 짜고들기 위한 방법론을 부단히 탐구해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자료기지를 폭넓고 현실성있게 구축하는것이다.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고있는 오늘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를 사회주의강국의 면모에 맞게 일신시키자면 과학기술보급실의 자료기지의 자료들을 시대의 발전추세와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현시기 당에서는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보급망을 형성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이 중앙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도록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단위들에서는 과학기술보급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종업원들이 자기 부문의 첨단과학기술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할수 있도록 더 많은 자료들을 보충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성, 중앙기관들에서 산하단위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종합하고 과학기술합의도 하면서 서로 자료교환도 하게 하여 자료의 보급과 공유를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이라고 내세워주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는 오늘 과학기술보급실의 덕을 크게 보고있다. 공장의 많은 기술자, 로동자들이 과학기술보급실에서 과학기술전당과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여러 과학기술보급기지들의 자료들을 열람하고 원격교육대학강의도 받고있으며 공장실정에 맞게 구축된 자료기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최근년간 공장에서 여러 품종의 제품들을 새로 개발하였으며 올해에만도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것은 과학기술보급실의 활발한 운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이 공장에서와 같이 과학기술보급실을 종업원들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을 끊임없이 전수하는 거점이 되도록 잘 운영할 때 단위사업에서는 새로운 혁신적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될수 있다.

－또한 일군들이 과학기술보급실리용에서 앞장에 서는것이다.

현시기 과학기술보급실을 훌륭히 꾸려놓고 운영을 잘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린 단위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

이 단위 일군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말로만 외우며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앉아서 기다린것이 아니라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리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뿐만아니라 훌륭히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을 제일 열성적으로 리용하는 사람들도,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남먼저 나서는것도 다름아닌 일군들이다. 일군들부터 앞장서니 종업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부쩍 높아져 적극 따라나서게 되였으며 집단안에는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한 학습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되였다.

현실은 과학기술보급실의 실속있는 운영에서 일군들의 이신작칙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하여 자신의 기술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시야를 넓혀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시대의 선구자, 빛나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여야 할것이다.

유 철

혁명적구호문헌을 목숨바쳐 지켜낸 인민군군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고있다.
－함경북도혁명사적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 위대성교양을 참신하게

개성시 림한리당조직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해설선전하기 위한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당세포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당보에 실린 절세위인들의 고매한 풍모와 천출위인상을 전하는 기사들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실정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현장으로 나간 한 일군은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독보하였다.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은 대중을 영농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주고있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높은 알곡증산으로 빛내일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로농통신원 류승균

# 3대혁명소조사업을 강화하여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자

## 중요한 당적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 황해북도당위원회 사업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의 생활력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한 이번 제5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에 황해북도안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가치있는 전시품들을 수많이 내놓았다.

전시품들에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을 높이 떨쳐나가도록 소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심화시킨 도당위원회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풍과 남모르는 수고가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가 파견된 단위의 당책임일군들은 일상적으로 소조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지도를 중요한 당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도당위원회의 당적지도에서 주목되는것은 우선 도당위원회일군들과 파견단위의 당, 행정일군들이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적극 떠밀어주도록 한것이다.

몇해전 3대혁명소조 년간사업총화를 계기로 도당위원회책임일군은 소조원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한적이 있었다.

도안의 많은 소조와 소조원들이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거둔 성과는 컸다. 하지만 일부 단위들은 그렇지 못했다. 어느 한 공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파견단위의 기술발전을 위해 크게 해놓은것이 없었다.

여러 단위들에 대한 료해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도당책임일군은 소조사업에서 성과가 없는 단위들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을 찾게 되였다. 그것은 3대혁명소조파견단위의 일군들이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그릇된 관점으로부터 소조원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그러니 그 단위의 소조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날수 있었겠는가.

3대혁명소조사업을 중시할데 대한 당의 의도에 비추어볼 때 결코 무심히 대할수 없는 심중한 문제였다.

도당책임일군은 3대혁명소조사업을 대하는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3대혁명소조운동의 위력이 높이 발휘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새기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도당일군들과 파견단위의 일군들이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가지고 당적으로 힘있게 밀어주도록 하였다.

도당책임일군부터가 3대혁명소조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나갔다.

3대혁명소조사업을 맡아보는 부서, 일군들의 협의회를 매주 의도적으로 조직하여 소조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보고받고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편향들에 대한 강한 대책을 세웠다. 해당 단위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나가는 기회에 3대혁명소조사업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였으며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도 세워주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와 사리원시 미곡리당위원회, 정암금속가공공장 초급당위원회를 비롯하여 3대혁명소조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성과를 내고있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한편 소조원들속에 들어가 그들이 기술혁신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3대혁명소조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 대책해나가는 도당위원회일군들의 진취적인 사업기풍은 도안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을 각성시키고 분발시켰으며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을 바로세워주는데서 큰 작용을 하였다.

당, 행정일군들속에서 3대혁명소조원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하는것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럴수록 도안의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나라의 철강재생산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우리 식의 탄산철생산공정확립, 초고전력전기로의 전극접속관을 우리의 자재, 우리의 원료로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3대혁명소조원들이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이룩한 하나하나의 성과속에는 소조사업을 책임적으로 떠밀어준 당조직의 손길이 그대로 어리여있었다.

최근년간 황해북도안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두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3대혁명소조기술혁신경기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닐수 있은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도당위원회의 당적지도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창조적열의를 북돋아주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한것이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들이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혁신과제수행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와 심의를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3대혁명소조파견단위들에서 소조원들을 생산총화회의와 참모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에도 자주 참가시켜 그들의 안목을 넓혀주고 조직지휘능력도 키워주었을뿐아니라 높은 영예와 긍지감을 가지고 소조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사업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하였다.

또한 도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소조원들의 창조적열의를 더해주는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결과 도안의 3대혁명소조원들속에서 3대혁명전위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두뇌전, 기술전을 과감하게 벌려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훌륭한 결실을 안아오게 되였다.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가 있은 이후 도안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청춘의 열정과 창조적지혜를 다 바치며 이악하게 투쟁하여 9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게 되였다.

우리는 3대혁명소조사업을 적극 밀어주고있는 황해북도당위원회의 사업을 놓고 확신하게 된다.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중요한 당적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때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의 생활력은 더 높이 발휘되게 된다는것을.

김 혁 철

##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갈 때

### 원산시가구공장 3대혁명소조원들

제5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에 참가하였던 원산시가구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을 취재하는 과정에 우리가 깊은 인상을 받은것이 있다. 그것은 소조책임자 김상철동무가 들려준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3대혁명소조가 한몫 단단히 할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공장에서 목수지관을 만드는 문제가 론의되였을 때였다.

목수지관은 쓸모없이 내버려지던 톱밥을 비롯한 무산물들과 파수지를 혼합하여 만들어내는것으로서 이것만 성공시키면 많은 자재를 절약하고 가구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었다.

공장에서는 이 연구과제를 3대혁명소조에 맡기기로 하였다. 이때 소조원 김철동무가 자진하여나섰다.

소조책임자는 남달리 탐구심이 높은 그에게 과업을 주면 빠른 시일에 수행해낼수 있다고 보고 대담하게 맡겨주었다.

김철동무는 즉시 목수지관을 만들기 위한 연구에 달라붙었다.

문헌조사와 설비조립 등 그는 밤낮을 잊고 뛰고 또 뛰였다.

어떤 때에는 하나의 실마리를 쥐기 위하여 하루밤에 수십리길을 걷기도 했다. 하지만 생각과 실천은 거리가 멀었다.

실험에서 실패가 거듭되자 김철동무의 마음속에서는 본의아니게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소조책임자의 생각은 깊어졌다. 그는 자기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집단의 지혜와 힘을 모아 최단기간에 끝낼 생각을 하지 못했던것이다.

그날 저녁에 있은 소조원들의 모임에서 소조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모두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간다면 지금 하고있는 연구과제들을 더 빨리 완성해낼수 있다고 본다. …

그의 말에 소조원들도 공감하였다. 이렇게 되여 김철동무의 연구과제완성을 위한데로 소조원들의 창조적지혜가 합쳐지게 되였다.

리철룡, 김지성, 장현심동무들은 자기 맡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그 바쁜 속에서도 김철동무를 진심으로 도와나섰다.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그들은 실패의 원인을 밝혀내고야 말았다.

결과 이들은 목편분쇄기, 수지분쇄기, 진동선별기 등을 자체로 제작하고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목수지관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소조에서는 이런 좋은 기풍을 적극 살려 기술혁신과제수행에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쳤다.

그 나날 새로운 접착제와 해면절단기 등 생산정상화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과제들을 완성할수 있었다.

서로 합심하며 도와주는 기풍은 이들의 생활속에도 관통되여있다.

언제인가 어느 한 소조원의 집수리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소조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바쁜 속에서도 집수리에 필요한 자재들을 성의껏 마련하였다. 그리고 저녁이면 그 동무의 집으로 달려가 온돌수리와 벽체미장도 해주면서 그의 일손을 적극 도와주었다.

소조원 장현심동무의 침실이 새로 꾸려졌을 때에도 소조원들은 너도나도 떨쳐나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해주었으며 명절날과 기념일이면 여러가지 음식들을 성의껏 준비하여 함께 즐겁게 쇠기도 하였다.

이런 나날속에 소조원들은 동지적으로 더욱 단합되였으며 그 위력은 사업성과에로 이어졌다.

소조책임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길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우리에게 주는 여운은 컸다.

합심, 바로 여기에 당의 믿음에 보답하는 길이 있고 성공의 지름길도 있다.

본사기자 윤 명 철

## 소중한 애국의 마음

### 운전군 운하협동농장 3대혁명소조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운하협동농장에 3대혁명소조원으로 갓 파견되여온 문철준동무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영농전투로 들끓는 농장벌로 나갔다.

농장원들과 만나 그해 농사형편을 파악하던 문철준동무는 한 농장원의 말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논벼를 뒤그루로 심어도 지금처럼 많은 소출을 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

농장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두벌농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자면 반드시 높은 수확고를 낼수 있는 뒤그루논벼재배방법이 있어야 하겠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이날 저녁 소조사무실로 돌아온 문철준동무는 이 문제를 기술혁신목표로 정하겠다는 의견을 소조원들앞에 내놓았다.

좋은 생각이라며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소조원들이 있는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울려나왔다.

목표는 정말 훌륭하다. 그러나 길지 않은 소조기간에 재배시험을 반드시 성공시킬수 있다는 담보는 없지 않은가. …

그 말에 문철준동무는 주춤거리지 않을수 없었다.

(정말 소조기간이 다 지날 때까지도 성공하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면 나의 소조생활이 허무한것으로 되지 않을가. …)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였다. 그는 잠시나마 나약해지던 마음을 다잡았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농업전선에 파견된 3대혁명전위로서 응당 나라의 쌀독을 먼저 생각하고 농업과학기술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자각이 그런 생각을 털어버리게 한것이였다.

(나 하나의 성과나 명예를 위한 씨앗을 뿌릴수 없다. 사회주의대지에 깨끗한 애국의 마음을 묻자.)

그의 결심은 농장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기술혁신과제수행이 3대혁명소조적인 사업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농장의 일군들은 시험포전을 정해주고 종자와 재배시험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농물자들도 아낌없이 보장해주었다.

오랜 기술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농사경험을 구체적으로 듣고 여러가지 벼재배방법들을 깊이있게 연구하는 과정에 문철준동무와 소조원들은 뒤그루큰모를 소식재배하기 위한 기술적담보를 찾아냈다. 다음해 시험재배에서부터 성과가 나기 시작하였다.

지난해부터는 그 결과가 뚜렷해져 이전시기의 뒤그루논벼재배방법보다 종자와 모판면적, 로력과 농약 등을 절약하면서도 소출을 훨씬 높일수 있는 믿음직한 재배기술을 확립하게 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지난해 농장강냉이밭의 소출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도 3대혁명소조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채우는데 이바지할 일념으로 그 과업을 스스로 맡아나섰고 강냉이밭의 토양조건에 알맞는 재배기술을 확립하여 훌륭한 결실을 안아왔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결사관철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운하협동농장 3대혁명소조원들은 오늘도 사회주의협동벌에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과 창조의 구슬땀을 다 바쳐가고있다.

리 춘 식

## 다방면적인 지식을 지닌 인재로

### 중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3대혁명소조원들

6개의 국가발명증서를 포함한 수십개의 기술혁신증서, 이것은 중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기술혁신을 하여 수여받은것들이다.

불과 몇명 안되는 소조원들의 힘으로 해놓은것이라고 볼 때 그 성과는 정말 대단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위한 두뇌전, 기술전의 전렬에서 청춘시절의 하루하루를 값높은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여나감으로써 강성부흥하는 조국의 미래를 앞당겨야 할것입니다.》**

지난해 1월, 초급당일군을 만나고 돌아오는 3대혁명소조책임자 서주형동무의 얼굴색은 밝지 못했다.

소조가 수행해야 할 년간 기술혁신목표를 세웠는데 초급당일군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것이다.

《현실에서 절실하게 해결을 바라는 과학기술적문제가 왜 이것뿐이겠소. 좀더 깊이 생각해봅시다.》

초급당일군의 이야기가 귀전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말을 되새겨보느라니 생각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

사실 그 전해에 그는 적지 않은 기술혁신과제들을 수행하여 과학기술성과등록증과 창의고안증서도 수여받았었다. 모두 자기의 전공분야에 해당한것들이였다. 이번에도 그는 전공지식을 활용할수 있는 범위에서 기술혁신목표를 세웠었다.

(당에서는 우리 3대혁명소조원들을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로 내세워주었다. 그런데 전공분야의 과제, 할수 있다고 생각되는것들만 골라하면 어려운 기술혁신문제들은 누가 풀겠는가. …)

이날의 일은 소조원들을 분발시킨 계기로 되였다.

서주형동무는 새로운 안목으로 현실을 파악하였다.

품이 많이 드는 건설작업에서 로력을 절약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던 그는 손으로 하는 바닥미장작업과 연마작업, 세척작업 등을 원격조종이나 자동으로 진행할수 있는 지능형다기능바닥미장기를 제작할 목표를 세우게 되였다.

이 목표를 수행하자면 기계공학과 전자자동화부문의 지식을 비롯하여 파악이 부족하거나 생소한 분야의 기술들을 습득하여야 했다. 기술문헌들에 대한 연구과정에 다방면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가치있는 성과로 보답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면서 그는 여러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사업과 지능형다기능바닥미장기의 설계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사업소과학기술보급실에서 국가망을 통하여 국내외의 최신성과자료들을 연구하면서 여러가지 좋은 착상을 하게 되였고 걸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들에도 수시로 다녀왔다.

실패도 있었지만 그는 락심하지 않았다.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는 한편 높은 실력을 지니기 위한 전투를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 지능형다기능바닥미장기를 제작하는데서 걸린 문제를 포착하게 되였고 그 해결책도 세울수 있었다. 그리하여 성공의 빛을 보게 되였다.

소조생활을 갓 시작한 허윤철동무도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였다.

전공분야와는 거리가 멀지만 건설현장들에서 필수적인 여러가지 기술들을 자기의것으로 만드는 과정에 실용적가치가 큰 만능전자경위의를 제작할것을 결심하고 대담하게 달라붙어 성공하였다.

사업소당조직과 일군들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신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도록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해결해주고 생활에서 애로가 있을세라 따뜻이 보살펴주었으며 연구과정에 난관이 조성될 때면 사업소적인 기술협의회도 조직해주면서 적극 떠밀어주었다.

이러한 사심없는 방조와 실력제고를 위한 소조원들의 투쟁이 고조되는 속에 지난해 이곳 3대혁명소조는 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내는 기술혁신성과들을 련속적으로 내놓게 되였다.

이들의 성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3대혁명소조원들이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킬 때 당이 바라고 대고조전투장들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을수 있으며 3대혁명전위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다는것이다.

본사기자

## 작 고 도 큰 문 제

리원수산사업소 3대혁명소조원 신일국동무는 3대혁명전위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기술혁신과제수행에 모든것을 다해나가고있다.

지난해 사업소에서 유수분리기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을 때였다. 배기관실에서 나오는 기름오수를 분리하여 바다물오염을 막는것은 소홀히 대할수 없는 문제였다.

신일국동무는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동력이 없이도 물과 기름을 분리해낼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해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을 보냈다. 새로운 분리방법을 찾기 위한 여러차례의 시험과정에 소조원은 기발한 착상을 하게 되였다. 이악하게 노력하여 그는 제작원가를 종전에 비해 극력 줄이면서도 분리효률을 높일수 있는 무동력유수분리기를 제작하였다.

사업소의 종업원들은 누구나 소홀히 한 문제를 소조원이 해결했다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만들기도 쉽고 쓰기도 편리한 유수분리기를 모든 배들에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비록 작은것 같아도 전국적범위에서 무동력유수분리기를 도입한다면 큰 예비가 조성될수 있다. 조국의 부강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소조원의 애국적마음이 뜨겁게 슴배여있는 귀중한 창조물이다.

본사기자

##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에 이바지하는 자랑찬 성과

### 제5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장을 돌아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3대혁명소조사업을 중시하고있으며 3대혁명소조원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큽니다.》**

지금 온 나라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에 반드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날마다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 격동적인 시기에 농기계부문과 각지 농촌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창안제작한 농기계들속에서 선별된 수십점의 능률높은 농기계들이 제5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에 출품되였다는 반가운 소식이 온 나라 농촌들에 전해졌다.

우리는 씨뿌리기전투를 시작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리라는 기대를 안고 3대혁명전시관의 새 기술혁신관을 찾았다.

즐비하게 늘어선 수많은 전시품들도 그렇지만 전시회장이 비좁도록 꽉 들어찬 참관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안겨들었다.

지난 시기 많은 전시회장들을 돌아보았지만 오늘의 전시회장은 분위기부터 다른것 같다는 우리에게 유례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3대혁명소조운동발단 45돐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신지 5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열린것으로 하여 전례없이 대성황리에 진행되고있습니다.》

전시회가 열린지 불과 며칠동안에만도 그 참관자수가 2만 4천여명, 저저마다 앞을 다투어 감상록에 자기들의 흥분된 심정을 담아 글을 남긴 참관자수도 많다는 책임강사 전영옥동무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전시회가 얼마나 높은 열의속에 진행되고있는가를 대번에 느낄수 있었다.

농기계부문만 보아도 다기능종자피복기와 씨뿌리는기계로부터 여러가지 형태의 깊은층비료주는기계는 물론 각종 탈곡기에 이르기까지 한해농사의 모든 영농공정들에 필요한 농기계들이 출품되였다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하였다.

바로 이 전시회장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오늘의 성과만이 아니라 래일의 밝은 전망이 그대로 비껴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은 흐뭇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의 정든 농장이라시며 찾고찾으시던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출품한 소형탈곡기와 깊은층비료주는 기계의 동작원리에 대한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 돌아서니 그옆에 나란히 전시되여있는 소형벼수확기가 류달리 눈길을 끌었다.

사리원시 선정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 리은혁동무가 창안제작한 농기계였다. 하루에 1.5~2정보의 벼가을을 하면서도 연유소비량은 일반수확기들에 비하여 적은 농기계였다. 그의 경험을 놓고 여러가지 물음을 제기하는 참관자들의 눈빛들이 얼마나 진지한지 혹시 방해라도 될듯싶어 발걸음을 옮기는데 우리의 팔목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황해남도에서 온 일군이였다. 이 전시회장에 출품된 탈곡기들속에 아마 배천군농기계작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내놓은 이동식벼종합탈곡기만 한 농기계가 없을것이라는 그의 자랑은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시간당 능률이 높고 포전들에서 이동하면서 리용하기에 매우 편리하게 창안된 이 탈곡기는 지난해 낟알털기에 대대적으로 리용되였다고 한다. 많은 농장들에서 사용하면서 그 우월성이 확증되였는데 농업근로자들속에서 호평이 대단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에는 배천군만이 아니라 도적으로 이 탈곡기를 대량생산하여 리용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참으로 3대혁명소조원들이 우리 나라의 농기계부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다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아직은 미숙한 점이 없지 않다고, 작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체질에 더욱 알맞는 탈곡기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겠다는 3대혁명소조원 리주혁동무의 소박한 목소리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우리는 평성시 봉학남새전문협동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 김현철동무가 출품한 소형강냉이탈곡기앞에서도 선뜻 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는 현실조건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임의의 장소에서 손쉽게 리용할수 있게 제작된것으로 하여 누구나 발걸음을 멈추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농기계인것이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 김수현동무가 내놓은 모내기 및 동시깊은층비료주는 기계, 화대군 읍협동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 최충광동무가 출품한 영양알모내는기계들도 실리적이였다.

이 하나하나의 농기계들에 슴배여있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지혜와 땀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에 실려오는것만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다.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창안제작한 다기능농기계와 청단군농기계작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창안제작한 마른논반종합써레도 많은 로력과 연유를 절약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 하나하나의 농기계들을 우리는 결코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우리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농사일에서 해방시켜주시려 한평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현실로 활짝 꽃피워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미더운 3대혁명소조원들이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제작완성한 창조물들은 볼수록 더더욱 소중히 안겨왔다.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자기 힘을 믿고 기발한 착상과 완강한 실천으로 고난을 박차며 힘차게 돌진해온 3대혁명소조원들의 충정심은 하늘에 닿아있는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에게 반갑게 안겨드는 낯익은 모습들이 있었다.

두해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드릴 새형의 농기계제작전투장에서 만났던 신원면정농기계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 김대성동무, 종합토양관리기계제작전투가 벌어지던 나날 로동자들과 함께 지혜를 합치가던 옹진군농기계작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 강경일동무, 지난해 제44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에서 처녀창안자로 참가자들의 눈길을 모았던 정원군농기계작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 강정옥동무…

돌아볼수록 그리고 만나 이야기해볼수록 미덥이 돋보이는 3대혁명소조원들이였다.

마치 구면친구라도 만난듯 서로가 허심하게 경험을 나누고 자기의 의견들을 교환하는 그들의 진지한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지방별특성과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다용도화된 농기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해갈 불타는 결의가 가득 어려있었다.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바로 우리의 미더운 3대혁명소조원들이 서있다고 생각하니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 념원인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의 그날은 멀지 않다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넘쳤다.

우리는 격정속에 제1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다시금 삼가 우러렀다.

진정 오늘의 이 전시회장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여기에 출품된 농기계들을 보여드릴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이제 이들이 자기 단위들에 달려가면 온 나라에는 농기계창안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번질것이다.

우리는 환희에 넘쳐 그려보았다. 우리가 생산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사회주의협동벌들에 꽉 차넘치게 하려는 당의 높은 뜻이 현실로 꽃펴날 그날을.

그리고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해마다 농업전선에서의 대승전고를 약속하며 우렁차게 울려퍼질 기계화의 자랑찬 동음이.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박 영 진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체육강국건설을 다그치자**

# 청소년체육학교가 새롭게 변모되기까지

## 해주시체육지도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평양시와 도, 시, 군 체육지도위원회들에서는 자기 지역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옳게 지도하며 체육단들과 청소년체육학교들의 사업을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최근년간에 해주시에서 체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 좋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각급 학교들에서 여러 종목의 체육소조운영사업이 더욱 활기있게 진행되고 시안의 기관, 기업소들에서 대중체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더우기 좋은것은 시청소년체육학교가 새로 훌륭하게 일떠선것이다.

세 경기를 동시에 진행할수 있는 실내배구장, 학생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진 식당과 휴게실들…

시청소년체육학교를 돌아본 사람들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우리는 취재를 진행하면서 해주시의 체육사업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를 시체육지도위원회 위원들부터가 이 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는데서 찾아보았다.

해주시청소년체육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과정이 좋은 실례로 된다.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청소년체육학교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시체육지도위원회 책임일군의 마음은 무거웠다. 생각했던것보다 부족한 점이 많았던것이다.

협소한 학교건물, 완벽하게 꾸려지지 못한 종목별훈련장들과 학생들의 휴게실들, 부족되는 후생시설들과 훈련기재들…

학교의 이러한 실태가 학생들의 훈련과 생활은 물론이고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있었다.

당시 시에서는 청소년체육학교를 다른 장소에 새로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기초공사까지 끝낸 상태였으나 로력과 자재사정으로 하여 오래동안 건설을 진척시키지 못하고있었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시체육지도위원회 위원들부터가 이런 실정을 알고있었지만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나타난 현상들을 분석해보는 책임일군의 생각은 깊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일군들부터 체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지 않았는가.)

물론 시적으로 할 일도 많았고 로력과 자재가 부족한것만은 사실이였다. 하지만 결코 거기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였다.

청소년체육학교사업이 조국의 금메달과 직결된 사업이라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주어진 조건만을 내세워 실천할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있는 일군들의 사업태도부터 바로잡아야 하였다.

며칠후 시체육지도위원회의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한 협의회에서 책임일군은 말하였다.

지금처럼 일군들이 청소년체육학교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지 못한다면 훌륭한 체육선수후비들이 나올수 없다. 우리가 체육사업이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외우면서도 청소년체육학교 하나 제대로 꾸려주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시체육지도위원회 위원들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책임일군의 이야기는 참가자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누구나 심각한 자책속에 자기 사업을 돌이켜보았다.

이처럼 책임일군은 시체육지도위원회 위원들의 관점과 태도를 바로잡는것을 문제해결의 중심고리로 정하고 그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이도록 하는데 품을 들였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청소년체육학교를 새로 건설하되 전국적으로 본보기가 될수 있게 현대적으로 꾸릴 통이 큰 목표도 내세웠다.

책임일군은 먼저 해당 일군들을 체육시설을 훌륭하게 꾸린 단위들에 보내여 그 경험을 배워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시의 일군들속에서 체육시설을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이왕이면 남보다 더 잘 꾸려놓겠다는 욕망도 생기게 되였으며 좋은 착상도 나오게 되였다.

책임일군은 시청소년체육학교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갔다.

청소년체육학교건설을 시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위원들에게 사업분담을 치밀하게 조직하는 한편 매개 단위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과업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강한 요구성을 내세웠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청년동맹원들과 녀맹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떨쳐나서고 위원들부터가 앞장에 서서 학교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로력을 적극 보장해주었다.

그리하여 3층으로 된 건물골조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이어 제일 어렵다고 하던 지붕과 바닥공사도 빨리 할수 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훈련장들과 사무실, 휴게실, 후생시설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지고 각종 훈련기재들도 그쯘히 갖추어졌다.

이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체육학교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과 태도에서는 전환이 일어났다.

시체육지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학생들의 후방사업에 이바지할수 있는 능력이 큰 종합적인 축산기지도 번듯하게 건설해놓았다.

다음으로 이곳 시체육지도위원회에서 잘한것은 위원들이 뒤에서 밀어주는 식의 후원이 아니라 함께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학교사업을 이끌어나가도록 한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에게 매월 분공을 구체적으로 주는 한편 총화사업을 엄격히 진행하였다.

또한 책임일군부터가 학교의 한개 체육종목을 맡아 학생들의 훈련과 경기,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까지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훈련장은 물론 경기장에 자주 나가 응원도 해주며 지도교원, 선수들에게 힘을 주었다.

그의 뒤를 이어 모든 위원들이 시청소년체육학교사업에 보다 깊은 관심을 돌렸다.

이렇듯 일군들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옳은 관점과 주인다운 일본새는 시청소년체육학교사업에서 좋은 성과들을 이룩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최근년간 이 학교 학생들은 도적으로는 물론 전국적인 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쟁취하였다. 학교에서는 새롭게 잘 준비된 체육선수후비들도 많이 자라났다. 학교의 체육과학기술보급사업에서도 전환이 일어나 앞선 훈련방법들이 적극 도입되고 교수훈련의 과학화수준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해주시체육지도위원회 사업경험은 어느 단위에서나 일군들이 체육사업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도록 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나갈 때 체육강국건설을 앞당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주령봉

# 한마음한뜻－조국의 금메달을 위하여

## 경흥지도국에서

지난 2월초 어느날이였다. 룡성구역에 있는 기관차체육단 정구선수 김미향동무의 집으로 경흥지도국의 일군들이 찾아왔다. 집살림형편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성의껏 마련해온 수십점이나 되는 생활필수품들을 안겨주면서 체육인딸을 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주는 책임일군의 진정에 선수의 어머니는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광경은 얼마후 광복거리에서 사는 김철주사범대학체육단 정구선수 홍지순동무의 가정에서도 펼쳐졌다.

며칠전 우리와 만난 고영수 정구협회 서기장은 이에 대해 알려주고나서 자기 단위앞에 나서는 과업만을 수행하자고 해도 늘 시간이 모자라지만 정상적으로 훈련장에도 찾아와 선수들에게 애국심을 북돋아주고 훈련과 경기보장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군 하는 지도국일군들의 관심과 열의는 참으로 대단하다고 하면서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입니다.》**

올해 1월말 어느날이였다.

이날도 지도국에서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훈련장에 찾아온 책임일군의 이야기가 선수들에게 큰 감흥을 불러일으키였다.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에서 한 전세대 체육인의 토론내용을 실감있게 들려준데 이어 천리마시대의 체육인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도 훈련열의를 최대로 고조시켜 내 나라를 빛내이는 훌륭한 체육성과들을 거두었다고, 그들처럼 훈련의 한초한초를 애국의 불바람으로 이어나갈 때 반드시 승리의 금메달을 안아올릴수 있다는 책임일군의 절절한 호소는 선수들의 심장마다에 더욱 불을 달아주었다.

이렇듯 선수들의 기술발전을 위한 물심량면의 지원사업을 꾸준히, 중단없이 벌려온 지도국일군들과 정무원들이였다.

2년전 어느날 정구협회 서기장은 지도국책임일군으로부터 세계적인 체육명수들의 육체훈련방법과 관련한 최신자료를 받게 되였다. 지도국사업으로 눈드바쁜 속에서도 종목발전에 필요한 자료수집까지 품을 들여해온 책임일군의 수고가 헤아려져 머리가 숙어졌다고 한다.

협회에서는 그 최신자료를 연구하는 과정에 우리 정구선수들의 육체적능력향상에 의의가 있는 앞선 훈련방법을 실정에 맞게 도입하였으며 결과 여러차례의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책임일군들부터가 앞장에 서서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한 전초선에 함께 섰다는 숭고한 자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지도국안에 더더욱 고조시킨 체육지원열의는 그대로 선수들속에서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게 하는 또 하나의 추동력으로 되였다.

이 나날에 교수훈련지도의 과학화실현에 절실히 필요한 측정기재도 해결되여 감독, 선수들의 사기가 나날이 높아졌다.

지도국사업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는 속에서도 체육지원사업을 언제나 빈틈없이 짜고들어 내밀고있는 김영학처장의 불같은 진정, 몇년전 출장길에서 국제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가는 우리 정구선수들과 인연을 맺게 된 때부터 친혈육이 된 심정으로 여러해동안 훈련과 생활보장에 지성을 바쳐오고있는 홍영준책임부원의 뜨거운 마음,

이렇듯 경흥지도국 일군들과 정무원들 그리고 지도국아래 여러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뿐아니라 생활에도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나라의 정구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온지도 이제는 10년이 되여온다.

그 기간에 우리 정구선수들은 아시아연시정구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차례의 국제경기들에서 순위권에 입선하는 좋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

지도국책임일군이 집을 다녀간 후 김미향선수의 어머니는 딸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 고마운 진정속에 조국의 금메달을 바라는 절절한 당부가 깃들어있음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지금 정구선수들의 훈련장에서는 앞으로 있게 될 국제경기들에서 기어이 승리를 떨칠 한마음으로 충만된 훈련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고있다.

필승의 그 기상을 더욱 용기백배하여주는 경흥지도국 일군들과 정무원, 종업원들의 애국의 마음도 식을줄 모른다.

그렇다.

선수, 감독들과 함께 그들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달리고있다.

조국의 금메달을 위하여!

체육강국건설의 결승선을 향하여!

이런 애국의 열풍이 어디서나 세차게 일어번질 때 아시아와 세계패권자들이 더 많이 배출되고 우리 조국을 체육강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울 그날은 더욱 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오철룡

# 체육단사업에 큰 힘을 넣어

##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체육단에서는 지난해에 진행된 2017년 세계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 녀자 48㎏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한정심선수를 배출하였다.

이런 훌륭한 선수의 뒤에는 유능한 감독과 함께 언제나 체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고있는 련합기업소의 일군들도 있다. 우승의 시상대에서 받은 금메달에는 선수, 감독들의 피타는 노력과 함께 련합기업소일군들의 헌신의 모습도 비껴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일군들부터 체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도록 하는것입니다.》**

지난해 이곳 체육단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을 때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그들을 위한 환영사업과 축하모임을 조직하고 종업원들앞에 내세워주었다.

비날론로동계급의 자랑인 그들을 모두가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또한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이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해가지고 선수들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사실 체육사업에 대한 이곳 일군들의 관심은 일상적인 사업의 한부분으로 되고있었다.

자주 체육단에 나가 선수들의 훈련진행과정도 알아보고 필요한 체육기자재들과 운동복도 마련해주었을뿐아니라 후방사업에도 언제나 극성이였다.

체육단사업에서 걸린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풀어주기 위해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을 보며 감독들과 선수들은 늘 감동을 금치 못하군 하였다.

선수들과 함께 훈련장을 달리는 심정으로 체육단사업을 위해 애쓰는 일군들의 이런 뜨거운 마음들에 받들려 이 체육단은 비록 규모가 작지만 여러 국내경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어느날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또다시 후방물자들을 가득 싣고 체육단을 찾아와 선수들과 감독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그 후방물자들에는 어머니조국에 금메달을 안아올것을 바라는 비날론로동계급의 뜨거운 지성이 어려있었다.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리며 조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기를 바라는 인민들의 뜨거운 기대를 새겨안은 이곳 체육단의 선수들과 감독들은 올해에도 국제국내경기들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공로혁

# 문화후생시설을 보다 훌륭히

## 연탄군 송죽협동농장에서

연탄군 송죽협동농장에 가면 훌륭하게 꾸려진 편의봉사건물을 볼수 있다.

농장원들이 즐겨찾는 이 건물에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농장원대중의 편의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애쓰는 농장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며 농촌마을들을 보다 문화적으로 꾸려 문명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지난해 어느날 농장을 돌아보던 리당일군은 생각이 많았다.

늘어가는 농장원들의 문화수준에 맞게 봉사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못하고있었기 때문이였다.

다음날 농장일군들과 작업반초급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리당일군은 농장의 편의시설을 보다 훌륭히 꾸릴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였다.

뜻밖에 편의봉사시설문제가 제기되자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때 리당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편의봉사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문제는 단순히 문화생활조건을 보장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니고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사상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농장초급일군들은 자신들의 사업태도를 심각히 반성하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농장일군들은 농장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미 있던 편의시설을 대담하게 헐어버리고 좋은 자리에 더욱 훌륭하게 일떠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리당일군부터 건설에 제일 걸리고있는 자재문제를 스스로 마련해나섰고 농장일군들과 작업반초급일군들도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농장원들의 문화생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편의시설 건설도가 나붙은 속에 건설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하루빨리 훌륭한 편의봉사시설을 마련해주자고 하면서 건설장에서 밤늦도록 긴장한 시간을 보냈고 건설에 동원된 보수원조원들도 불붙는 전투를 벌려나갔다.

농장의 일군들은 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서는데 맞게 미장을 하고 타일 한장 붙여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하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쳤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날과 날이 흐르는 속에 건설을 시작한지 불과 몇달 만에 목욕탕과 리발실, 미용실 등을 갖춘 편의봉사건물이 일떠서게 되였다.

훌륭하게 꾸려진 편의봉사건물에 넘쳐나는 농장원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농장일군들은 인민의 충복된 자각을 깊이 새겨안았으며 그들을 위해 좋은 일을 더 찾아할 결심을 굳게 다졌다.

농장원들의 랑만에 넘친 웃음소리는 그대로 영농성과로 이어졌다.

농장에서는 편의시설을 새로 꾸리는 사업을 내미는것과 함께 리문화회관을 개건하기 위한 전투도 힘있게 벌렸으며 농장원들의 생활상애로를 풀어주는데도 관심을 돌리였다. 이 나날에 농장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 못해낼 일이란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특파기자 신경섭

과학기술의 힘으로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간다. —서두수3호발전소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 전국의학과학토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염병과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50돐기념 전국의학과학토론회가 27일과 28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보건부문 의료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참가한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받들고 의학과학부문에서 이룩한 25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토론회는 간염, 결핵, 위생방역분과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치료예방과 위생방역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 등을 반영한 론문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의학연구원, 보건성 제2예방원, 보건성 제3예방원, 평양시 제2예방원, 중앙위생방역소 등의 교원, 의료일군들이 발표한 연구론문들이 림상실천에서 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당의 주체적보건사상과 정책을 받들고 인민보건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첨단돌파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나라의 의학과학기술발전과 치료예방사업개선에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우수한 론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였다.

# 제5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 폐막

제5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가 폐막되였다.

전력, 금속, 화학, 석탄, 기계 등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가치있는 성과자료들이 소개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고분자나노복합수지를 리용한 수차의 공동부식방지 및 효률제고, 수자식자동철근절단기, 하서종합처리에 의한 알루미나생산, 고온고압염색기 기밀장치, 페이자종자처리기, 마대포장공정로보트화, 조온기설계 및 제작을 비롯한 과학기술제안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은률광산, 평양화장품공장, 원산구두공장, 강계편직공장,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등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내놓은 기술혁신성과들이 현실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평가를 받았다.

폐막식이 28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평해동지와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위원회, 성, 중앙기관, 관계부문 일군들, 모범적인 3대혁명소조원들, 3대혁명소조파견단위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3대혁명소조원들, 일군들에게 우승컵과 상장,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동지가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일념안고 대고조전구마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뛰어난 과학적재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3대혁명소조원들이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가 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수 있는 더 많은 기술혁신성과들을 내놓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로씨야대사관 성원들

# 군자혁명박물관 참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9돐에 즈음하여 주조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28일 군자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이곳을 찾으시여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들과 인민들을 전시생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전시된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알렉싼드르 미나예브 공사참사는 감상록에 박물관참관을 통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에 기여한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성에 대하여 절감하였다는 글을 남기였다.

이에 앞서 대사관성원들은 조선로씨야친선 모란봉제1중학교와 류경김치공장을 참관하였다.

#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클 준비사업 활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떨쳐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평양에서는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클이 진행되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예술교류를 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맞으며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클은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있다.

평양국제성악콩클은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창작완성되여 세계의 수많은 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피바다》식 5대혁명가극의 노래들을 비롯한 조선의 명곡들과 세계명곡들에 대한 예술적형상수준을 더욱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번 콩클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재능있는 성악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기간 예술적기량을 련마하는 과정에 얻은 성과와 경험들을 서로 나누면서 성악예술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 기여하게 된다.

지금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클 준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콩클조직위원회에서는 주체음악예술발전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사회주의조선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평양국제성악콩클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준비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콩클조직위원회에서는 이번 평양국제성악콩클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맞게 콩클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것과 함께 하나하나 착실하게 실천해가고있다. 조직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은 진취적으로 사색하고 탐구하여 기발한 착상들을 내놓으면서 콩클준비사업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있다.

이번 콩클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평양의 명승 모란봉에 자리잡은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게 된다. 콩클장소인 모란봉극장이 더욱 이채롭게 장식되고있으며 개막행사를 특색있게 진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사업들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또한 콩클참가자들이 예술적기량을 높이 발휘할수 있도록 편리한 련습장소들을 보장하며 그들의 요구에 따라 피아노반주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책임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한편 콩클입상자들에게 수여하게 될 컵과 메달, 상장들이 특색있게 제작완성되였다.

이와 함께 콩클기간에 진행되게 되는 시대와 음악예술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준비사업들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이번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클은 인류음악예술발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고 여러 나라들사이의 문화예술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우정희

## 우리 나라 팀

# 2019년 아시아축구련맹 아시아컵경기대회 참가자격 획득

## 최종예선 2조경기에서 중국 홍콩팀을 2:0으로 이겼다

2019년 아시아축구련맹 아시아컵경기대회 최종예선 2조경기가 결속되였다.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된 최종예선경기에서 우리 나라 팀은 레바논,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팀과 함께 2조에 속하여 서로 래왕하며 련맹전의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우리 나라 팀과 중국 홍콩팀사이의 마지막경기가 27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있었다.

전반전 경기시작부터 우리 팀 선수들은 공격속도를 부단히 높이며 빠른 공배몰기와 역습으로 상대팀문전을 련속 위협하였다.

팀의 전술적의도에 맞게 선수호상간 협동을 잘하면서 공격을 강화하던 우리 팀의 11번 정일관선수가 경기시간 19분경 상대팀 방어진을 허물어버리며 단번차넣기한 공이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졌다.

경기시간 25분경 역습축공을 노리던 우리 팀의 9번 박광룡선수가 공격마당 왼쪽에서 넘어온 공을 문전으로 돌입하며 차넣은것이 또다시 통쾌하게 그물에 걸렸다.

중국 홍콩팀은 잃은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 득점기회를 노리며 부단히 공격을 시도하였지만 우리 팀의 든든한 방어에 의해 좌절당하였다.

결국 이날 경기에서 우리 나라 팀은 중국 홍콩팀을 2:0으로 이기고 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2019년 아시아축구련맹 아시아컵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대학생과학탐구상 수여모임 진행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학습과 과학탐구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대학생들에게 대학생과학탐구상이 수여되였다.

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 선구자, 개척자가 되고 지식경제시대의 당당한 주인이 될 야심만만한 포부를 안고 전국의 대학생들은 두뇌전, 기술전을 맹렬히 벌려 가치있는 발명 및 새 기술혁신안들을 창안하였다.

대학생과학탐구상수여모임이 27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청년동맹일군들,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지난 기간 학과학습에서 모범을 보이였으며 학생과학연구소조활동에서 성과를 이룩한 680여명의 대학생들에게 대학생과학탐구상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였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 제11차 국제체조련맹 세계컵기계체조 개인기재별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 우리 나라 선수들 귀국

제11차 국제체조련맹 세계컵기계체조개인기재별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선수들이 27일 귀국하였다.

까타르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도이췰란드, 우크라이나, 영국을 비롯한 29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150여명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여 승부를 겨루었다.

우리 나라의 김수정선수가 평시에 련마한 육체기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녀자마루운동에서 1위를, 변례영선수가 녀자조마운동에서 2위를 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이 우승하고 돌아온 선수,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김수정선수

#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그리움을 안고

## 삼지연군꾸리기에 지성을 바친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소행

그 누가 시켜서나 떠밀어서가 아니였다. 어버이장군님의 고향군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높이 받들고 스스로 바치고바치는 인민의 다함없는 충정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며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어느날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이 달려가는 삼지연군을 다녀온 은하지도국 일군인 김미옥동무는 종업원들앞에 나섰다. 그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집이 있는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의 투쟁기풍과 생활에 대해 종업원들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모든 종업원들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했다. 그날 절절히 터치는 일군의 호소를 들으며 부원 우연옥동무의 가슴은 울렁거리기만 했다.

(당의 사랑속에 성장해온 우리 4남매야말로 우리 장군님의 고향군을 꾸리는 사업에 제일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갈마들수록 한생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해온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우연옥동무의 뇌리를 쳤다.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혁명가의 참된 보람을 알게 되였다며 장군님을 받들어 충정다하는것이 한생의 좌우명이라던 아버지의 말이. 그날 저녁 우연옥동무는 삼지연군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진정을 바치려는 마음을 터놓았고 온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되여 우연옥동무는 온 가족의 지성어린 지원물자를 삼지연군꾸리기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에게 보내주게 되였다.

지난 시기 여러가지 옷도안을 훌륭히 창작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린 은하기술준비소 준비원 김별이동무도 삼지연군꾸리기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마음으로 많은 후방물자들을 지원하여 돌격대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높이 받들고 8.28청년돌격대 대원 박광일동무도 삼지연못가주변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충정을 바치였다.

10여년세월 영예군인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어 새 세대 청년전위의 풍모를 보여준 체오기술합작회사 로동자 한수영동무의 진정은 또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혁명의 넋을 주고 신념의 한길을 곧추 가라고 떠미는 곳이여서 저의 마음은 언제나 백두산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많은 물자를 마련해가지고 삼지연전역으로 달려갔으며 기술원 김광성동무도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삼지연군꾸리기에 지성을 다하였다.

어찌 이들뿐이랴.

지난 시기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한 대외경제성 리용림동무와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김춘혜동무는 한여름에도 얼음층이 깔려있는 백두산지구에서 청춘시절을 빛내여가고있는 돌격대원들에게 포근한 내의를 보내주었고 대외경제성 산하단위 부원 신연희, 기상수문국 기후연구소 실험조수 백향심, 대성구역 룡흥초급중학교 로동자 김은정동무도 여러차례에 걸쳐 삼지연군꾸리기에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주었다.

삼지연군을 더 잘 꾸리는 사업에 참가하여 귀중한 청춘시절을 빛내여가고있는 대성산유희시설관리소 강사 황옥향, 량강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 해운사업소 로동자 전향이동무는 함께 일하는 돌격대원들을 위해 진정을 다하였으며 국립연극단 로동자 최창명동무는 돌격대시절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긍지를 가슴에 안고 삼지연군꾸리기에 물심량면의 지성을 바치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충정의 길을 걷고있는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로동자 송혜영동무는 삼지연군꾸리기에 참가한 속에서도 누구보다 지원사업에 앞장서고있으며 평양농기계부속품공장 로동자 리혜성동무와 국가검열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류향숙, 철도성 부원 김명순,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 로동자 최은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관리연구소 연구원 한승호, 국가나노기술국 연구사 강철, 만수대창작사 최수향, 대외건설지도국 옥류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로동자 김은철, 백두산건축연구원 설계원 김철성, 모란지도국 아래단위 로동자 렴경숙, 평양정보기술국 연구사 윤영주, 중구역 동흥동에 살고있는 리순정동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삼지연군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충정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각지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도 삼지연군꾸리기에 고결한 충정을 다 바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배우며 자란 나날들을 못 잊어 삼지연군꾸리기에 누구보다 아낌없는 지성을 바친 철도성 아래단위 지배인 김영화, 청진철도국 사령원 김봉두, 라선철도국 리춘옥, 평안남도청년돌격대 대원 탁서철, 평안북도청년돌격대 참모 장수혁, 장풍군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최은하, 신의주시위생방역소 의사 박원혁, 정주광산 작업반장 현병철, 황해남도인민위원회 아래단위 소장 윤봉실, 혜산시제2인민병원 조제사 최정실, 강계의학대학 교원 박성철, 함흥시 해안구역 원료기지사업소 로동자 최혁, 고원군가내생산협동조합 로동자 양경춘, 흥남제약공장 3대혁명소조원 김광명, 청진시 포항구역상업관리소 로동자 림명화동무…

직업과 나이,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더욱 훌륭하게 꾸리는데 이바지하려는 충정은 하나같은것이다.

삼지연군꾸리기를 물심량면으로 지원하고있는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해만 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당에서 벽을 울리면 강산을 울리는것으로 화답해나서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의 발현으로 된다.

본사기자 오은별

### 구장군인민병원에서

# 혈육의 정 넘치는 한식솔

사회주의 내 나라는 얼마나 좋은가.

얼마전 구장군인민병원을 찾았던 우리는 한 평범한 녀학생을 위하여 지난 4년세월 남모르는 진정을 기울여온 이곳 의료일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3월 중순 구장군인민병원 외과는 어느때없이 흥성이였다. 며칠 있으면 과에서 친딸처럼 돌봐주고있는 류정이가 열다섯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였던것이다.

그래서 기념품은 어떤것을 마련하고 류정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무엇을 더 할수 있겠는가 서로 의견들을 내놓고 토론에 열중하였다. 그 모습을 감동깊게 바라보는 과장 김영일동무의 눈앞에 류정이와 인연을 맺고 흘러온 못 잊을 나날들이 선히 떠올랐다.

4년전 어느날 군인민병원 외과로 한 어린 학생이 실려왔다. 뜻밖의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친 그 환자가 바로 류정이였다. 응급처치를 한 후 과에서는 10여차례의 의사협의회를 열고 치료전투를 벌리였다. 여러 시간 진행된 수술은 성과적으로 끝났지만 의료일군들은 마음의 탕개를 늦출수 없었다. 수술로 어린 환자의 영양상태가 나빠졌던것이다. 의료일군들은 하루빨리 환자의 건강을 추켜세우기 위해 성의를 다하였다. 끼마다 식탁에 구미에 맞는 음식을 한가지라도 더 올려놓기 위해 누구나 마음을 썼다.

의료일군들의 정성에 떠받들려 류정이의 몸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다.

그러던 어느날 김영일동무는 입원기간 환자의 부모들이 한번도 병원에 오지 않는것이 이상하여 류정이의 집을 찾아 길을 떠났다. 알고보니 류정이는 일찍 어머니를 잃었고 그의 아버지는 집에서 앓고있었다.

그날 환자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치료대책까지 토론하고 돌아선 김영일동무였지만 마음은 몹시 무거웠다.

(고마운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언제나 밝게 웃으며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류정이가 아닌가. 그의 마음속에 그늘이 지게 해서는 안된다.)

김영일동무는 돌아온 즉시 당세포위원장 김충길동무와 마주앉아 류정이의 가정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날부터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마음이 류정이의 집에 가닿았다. 생활의 구석구석에 그들의 따뜻한 손길이 미쳤다. 집안팎이 깨끗이 정돈되였고 명절들과 아버지와 오누이의 생일이면 류정이의 집에는 웃음이 넘쳐났다. 봄철, 가을철 운동회가 진행되는 날에는 의료일군들이 학부형이 되여 가정에서 준비한 별식을 가지고 학교로 찾아갔다. 환자치료로 드바쁜 속에서도 언제나 류정이네 가정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성심성의를 다하는 의료일군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을사람들은 친혈육이면 그보다 더 극진하겠는가며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뜨거운 혈육의 정이 오고가는 속에 의료일군들과 류정이네 가정은 한식솔이 되였다.

그들을 위하는 김영일동무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의 마음은 진할줄 몰랐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뜨거워졌다.

지난 설명절날 의료일군들은 류정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를 찾아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한마음한뜻으로 변함없이 충직하게 받들 불타는 결의를 담아.

본사기자 김진욱

# 고마운 사람들의 진정속에

## 사리원시 운하1동에 살고있는 리룡각전쟁로병의 생활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병동지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하여 돌보아주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리룡각전쟁로병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공병으로 용진해방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웠다.

전후에 그는 우리 당의 은정속에 대학을 졸업하고 수십년간 사리원보이라공장에서 기술자로, 기사장으로 성실히 일해왔다.

이런 그가 여생을 편히 보낸다고 누가 탓할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품어주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해같은 은덕과 고목에도 꽃을 피울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천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한채 어떻게 여생을 편히 보낼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로병의 마음이다.

하기에 그는 80고령에도 변함없이 출근길에 오르고 공장의 생산정상화를 위해 지혜와 정열을 아끼지 않고있다.

로병이 오늘까지 이렇게 보답의 길을 꿋꿋이 이어가는데는 생의 활력이 되고 자양분이 된 고마운 사람들의 아낌없는 진정이 소중히 깃들어있다.

그들속에는 한 처녀보안원도 있다.

수년전부터 리룡각전쟁로병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하며 그의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고있는 황해북도인민보안국 인민보안원 라철옥동무.

그가 대학시절 전쟁로병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로병의 집을 찾은 날 리룡각전쟁로병의 두손을 뜨겁게 잡으며 한 말이 있다.

《전쟁로병할아버지에게서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을 배우고싶습니다.》

이 한마디 말이 로병의 가슴을 그토록 울려준줄 라철옥동무가 어찌 알았으랴.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5년세월 로병을 위해 바치는 그의 진정은 끝이 없었다.

로병이 잊지 못해하는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대학에서 진행한 답사를 마치고 돌아온 라철옥동무가 그길로 로병의 집을 찾았다.

먼길 다녀온 친손녀를 맞이하듯 반갑게 라철옥동무를 집안으로 이끌던 리룡각전쟁로병은 그가 지고온 배낭에 눈길이 모아졌다.

《이건 뭔데 이렇게 한짐 지고오느냐?》

지친듯 하던 라철옥동무의 얼굴에 금시 웃음이 넘실거렸다.

《할아버지, 이건 이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보약을 지어주려고 마련한거예요.》

《뭐, 보약?》

라철옥동무가 펼치는 배낭을 들여다보던 로병은 다시한번 놀랐다.

부모와 동무들에게 안겨줄 기념품대신에 건강에 좋은 약초가 한가득 들어있는것이였다.

《철옥아!-》

로병은 그만 눈앞이 흐려져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친손녀면 이보다 더하랴.

그것은 단순히 혁명의 로세대앞에 지닌 새 세대의 의무이기전에 한없이 순결한 량심이였으며 고결한 도덕의리였다.

처녀보안원뿐이 아니였다.

로병이 힘들어할세라 힘을 주고 의지가 되여준 사리원보이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며 명절날은 물론 수시로 찾아와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 진정한 애국자로 내세워주는 고마운 어버이당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주는 도당과 시당의 일군들,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의 교원들…

오늘 우리의 전쟁로병들이 조국해방전쟁참전자라는 영예감을 가지고 로당익장하면서 자기의 한생을 보람있게 빛내여가고 있는것은 다름아닌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이런 미덕의 소유자들이 많아서이다.

유광진

# 보통강에서 있은 일

지난 3월 12일 오후 5시경 보통강가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울렸다. 강가에서 놀던 대여섯살 난 세 아이중 한명이 물에 빠진것이였다.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오가는 사람도 별로 보이지 않는지라 기슭에 있는 아이들은 강복판으로 점점 밀려나며 허우적거리는 동무를 보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때였다.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왔다. 그는 두말없이 물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강기슭의 감탕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고 다음에는 찬 물결이 숨막힐듯 덮쳐들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강한복판으로 헤염쳐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모든 지휘관과 병사들이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아이를 구원한 그 사람이 기슭에 나와 응급대책을 세우고있을 때 지나가던 한 로인과 처녀가 달려왔다. 뒤따라 한 청년도 달려왔다.

정말 수고했다고, 어디에서 사는 누구인가고 그들이 다우쳐 물었지만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은 자기의 이름과 직무를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바쁜 일때문에 가던 길이였다고, 아이가 정신을 차렸으니 미안한대로 집에까지 데려다주면 고맙겠다고 하고는 총총히 가던 길을 이어가는것이였다.

고마운 사람들에 의해 박영성어린이는 무사히 보통강구역 석암동에 자리잡은 자기 집에 도착하였다.

늦게 본 외아들인 어린 자식이 구사일생으로 구원된 사연을 알게 된 박영성의 어머니 림영희동무는 자기 가정의 은인을 찾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그 과정에 이름 석자도 안남기고 사라진 고마운 사람이 임무수행중에 있던 조선인민군 군관 김정철동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원해준 사람이 다름아닌 인민군군관이라는것을 알고 석암동주민들은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도 그 어떤 대가는 고사하고 오히려 얼굴붉히며 자리를 피하는 군대는 우리 인민군대밖에 없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했다.

《이 애도 조국의 미래가 아닙니까. 그 애의 생명을 구원했으니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박영성어린이의 부모는 아이를 구원한 현장에서 김정철동무가 하였다는 이 말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인민의 군대로서 인민의 생명을 구원한 긍지와 자랑을 남모르게 품어안고 군사임무수행의 길을 이어가는 김정철동무.

그처럼 훌륭하고 믿음직한 인민의 수호자들이 있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밝게 웃고 발편잠을 자는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허명숙

특류영예군인의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는 함흥제1백화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본사기자 최충성 찍음

### 탄부들의 어머니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덕성탄광에 탄부들이 존경하는 녀인이 있다. 부원 신춘선동무이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결혼식을 한 제대병사들중 한사람이였던 굴진공 김병철동무의 안해이다.

5년전부터 그의 온 가족은 탄광주변에 흘린 탄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티끌모아 큰 산이라고 그렇게 모은 탄이 어지간히 쌓이면 신춘선동무는 그것을 북창의 동력기지에 보내주군 하였다. 하여 충정의 70일전투의 나날에는 탄부안해들과 함께 애국의 마음안고 모은 많은 석탄을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보내주었다.

지난해 석탄생산을 위해 한몸을 깡그리 불태우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기 몫까지 합쳐 탄광일을 힘껏 도와달라던 남편의 당부를 안고 그는 석탄수집을 잠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탄부들을 대하고 그들을 위해 지성을 다하는 신춘선동무, 늘 한g의 석탄이라도 더 생산하여 북창으로 보내줄 일념안고 석탄생산에 필요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한 그를 두고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애국으로 온넋을 불태우는 탄전의 녀인,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하고있다.

본사기자

#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 판이한 현실이 새겨주는 진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때로 우리는 조용히 묻군 한다.

나는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을 다 알고있는가. 정말이지 복속에서 복을 모르듯이 당의 품속에서 알고 받는 사랑보다 모르고 받는 사랑이 더 많은 우리 인민이다.

며칠전 락랑구역 정백1유치원을 찾았던 우리는 그곳에서 온 나라가 다 아는 415번째 세쌍둥이를 만나게 되였다.

엊그제 평양산원에서 고고성을 울린것 같은데 그들이 벌써 유치원생이 되였다.

정명숙원장의 말에 의하면 세쌍둥이는 지난해 3월말에 유치원에 왔다고 한다. 그때 온 구역이 떠들썩하며 세쌍둥이를 맞이했다.

당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앞두고 태어난 415번째 세쌍둥이와 그의 부모에게 대를 이어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가슴가득 안겨주었다. 그 사랑에 목메여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데 온 산원이 떨쳐나 산모와 세쌍둥이를 위해 진정을 바치고 이름도 모를 사람들이 물밀듯이 찾아드니 김순옥녀성의 입에서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떠날줄 몰랐다.

몸무게가 4kg은 실히 되여 평양산원문을 나선 세쌍둥이는 평양육아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였다. 육아원의 보육원들은 세쌍둥이에게 나라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었다. 그 나날속에 세쌍둥이는 육아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다섯살 잡히던 지난해 정백1유치원에 온 세쌍둥이는 1년동안 또다시 나라의 혜택속에서 마음껏 재능의 나래를 펼치었다.

성악, 기타연주, 글쓰기…

재간둥이로 자라는 세쌍둥이의 모습을 대할 때면 김순옥녀성의 생각은 깊어진다.

예로부터 자식을 낳아키우는것은 녀성들의 천직이라고 일러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가 수백만공수, 수천만 품을 들여 산모들을 돌봐주고 애기들을 옥동자, 옥동녀로 키워 내세워주고있으니 그들의 진짜부모는 과연 누구인가.

《나라에서 세쌍둥이를 위해 먹을것, 입을것을 보장해주고 철따라 좋은 보약들을 공급해줄 때면 제가 그 애들의 어머니라고 말하기조차 저어됩니다.》

김순옥녀성의 진정어린 토로였다. 참으로 415번째 세쌍둥이의 성장과정은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좋은가를 실상으로 보여주는 세부였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부럼없이 자라는 세쌍둥이.

그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느라니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에 다녀왔다는 한 보건일군이 하던 말이 돌이켜진다. 어느날 그는 그 나라 병원에서 참으로 뜻밖의 사실을 목격하게 되였다. 의사라는 사람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를 병원문전에서 되돌려보내는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여서 보건일군은 격분하여 왜 환자를 돌려보내는가고 소리쳤다. 그러자 한동안 어안이 벙벙해있던 의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잠시후 그는 병력서의 두 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무런 담보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는가고 코웃음을 치는것이였다. 병력서의 두 란은 보호자란과 보험란이였다. 그런 병력서를 처음 보는 그로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른 리해되지 않았다. 그러한 그에게 의사는 보호자란 치료비를 누가 대줄수 있는가 하는것을 의미하며 어느 보험에 들었는가 하는것은 수술을 하다가 혹시 잘못되는 경우에 수술비용을 무엇으로 담보하겠는가를 의미한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참으로 험악한 세상이였다. …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돈이 없으면 병이 나도 고스란히 죽어야 하는것이 자본주의사회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치료도중 잘못되는 경우에 죽은 사람의 보험금까지 털어먹는것이 《만민복지》를 자랑하는 서방의 보건제도라고 생각하니 너무도 기가 막히여 말이 나가지 않았다고 했다. 도대체 그 나라 의사들이 그처럼 자랑하는 《의학기술의 발전》이 누구에게 필요하며 그 덕을 보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뿐이 아니다.

평양산원 의료일군들은 산원을 찾아오는 외국손님들로부터 자주 귀에 선 이런 물음을 받는다고 한다.

진단을 한번 받자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피검사 한번에 돈을 얼마 냅니까? 렌트겐검사를 한번 받는데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초음파검사 한번 하는데는 돈이 굉장히 들겠지요? 보육기를 리용하자면 하루 얼마씩 돈을 내야 하는지요?…

사실 이것들은 그들이 살아온 제도자체가 그들에게 습관시켜준 물음이다.

의학의 시조로 알려진 고대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의 도덕에 대하여》에서 의사는 치료하기 전에 치료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며 뇌물을 섬기도록 하여 환자들이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할것을 강조하였다. 그후 히포크라테스의 이 주장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의사들이 지켜야 할 행동질서로 보다 정립되였다.

의학륜리학의 내용은 해를 거듭하며 더욱 보충완비되였으며 20세기 중엽에는 세계의학협회에서 《국제의학륜리법규》까지 채택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나 지역은 물론이고 그 어느 개인병원이나 국영병원에서도 고대시기에 제기한 의학의 륜리를 오늘도 지키지 못하고있다. 오히려 날이 감에 따라 의사와 환자사이의 관계는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의 관계로 되여버리고 보건의 상업화가 촉진되여 돈없는 사람은 병원문앞에도 못 가보고 숨지는 비극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다.

녀성들의 해산비 최고 1만US$, 산모의 하루입원비 최고 1 200US$, 갓난애기의 하루입원비 1 400US$…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이것은 보편적인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해산을 앞둔 임신부들이 병원에서 문전거절을 당해 한지에서 해산하는 일이 수시로 잇달으고있으며 임신부들이 아이를 낳기도 전에 아이의 학비걱정부터 한다는 이야기가 거침없이 나오고있는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으며 사는 우리 인민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이런 제도를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며 심장으로 웨친다.

사회주의 그 품을 떠나 우린 못살아!

본사기자

### 민청원의 최후

신천박물관에는 원쑤들의 악독한 고문과 죽음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혁명적신념을 지켜싸운 양용녀동무의 투쟁자료도 전시되여있다.

그는 신천군 문화면 화산리(당시)의 민청초급일군이였다. 가난한 소작농의 딸이였던 그는 해방후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된 자랑과 희열에 넘쳐 건국사업에 발벗고나섰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신천땅에 기어든 미제침략군놈들은 반동단체를 조직하고 화산리에서만도 수십명의 당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생매장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의 만행을 목격하고 더우기 오빠의 피살소식까지 듣게 된 양용녀동무는 복수를 다짐하고 인민유격대를 찾아 떠나던 길에 원쑤놈들에게 체포되였다.

극악한 계급적원쑤놈들은 빨찌산이 어디 있는가, 당원들이 어디에 숨었는가고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들이댔으나 용녀동무에게서는 오직 모른다는 단마디 대답만 울려나왔다.

악에 받친 원쑤놈들은 야수적인 고문을 들이대며 발광하였다. 나중에 놈들은 한뽐도 넘는 대못을 그의 머리에 대고 만일 비밀을 대지 않으면 머리에 못을 박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러자 용녀동무는 《이 인간백정놈들아, 못을 박을테면 박아라. 그 못을 박는다고 나의 사상이 변할줄 아느냐. 승냥이같은 네놈들이 그 대못을 내 머리에 박는다면 나의 사상을 표시하는 붉은 피만이 흐를것이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라고 단호히 웨치였다.

간악한 원쑤놈들은 끝내 그의 머리에 대못을 박아 무참히 살해하였다.

민청원 양용녀동무의 최후는 계급적원쑤들이 얼마나 악독하며 놈들과 끝까지 싸우자면 얼마나 억센 신념을 지녀야 하는가를 우리 후대들에게 뼈속깊이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무산군계급교양관 강사의 이동강의를 들으며 반제계급의식을 더욱 높여나간다.
—무산기초식품공장에서— 정철훈 찍음

# 국제적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인류공동의 의무

국제무대에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있다. 제국주의렬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정의도 부정의로 범죄시되고있다.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정의 아닌 《정의》들이 채택되고 정의와 진리가 짓밟히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묵인되고있다.

오늘의 정세는 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인민들이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정견과 신앙, 경제 및 문화발전의 차이에 관계없이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시대가 제기하는 력사적과업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공동의 의무이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내드는 철면피한 《정의》의 허울을 벗겨버려야 한다.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날로 악랄해지고 교활해지고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이나 무력침공을 《테로소탕》, 《인권옹호》, 《평화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묘사하고있다.

정의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한것이라고 묘사하고있는 《테로와의 투쟁》은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테로행위, 새로운 변종의 침략전쟁책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국제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면서 적하면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걸고들고있는것도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압력, 침략과 정부전복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반테로》와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침공이 그것을 실증해주는 대표적실례들이다.

지금 이 나라들은 모든것이 황폐화되고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판무장으로 되였다. 매일과 같이 숱한 사상자들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란을 피해 피난의 길에 오르고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광고하는 《정의》라는것이 과연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정의》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날강도적인 행위가 계속 용납된다면 세계는 부정의가 정의를 누르고 침략과 전쟁이 판을 치는 무법천지로 될것이다. 진정한 정의를 바라는 나라들은 《정의》의 허울을 쓰고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의 위험성을 똑바로 보고 그것을 절대로 허용,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정의》의 간판밑에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맡고있다. 유엔헌장 제1조는 《평화의 파괴를 초래할수 있는 국제분쟁이나 사태를 평화적방법으로 그리고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조정, 해결할것》을 규제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을 위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은 유엔을 도용하여 주권국가들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공공연히 유린하고있다.

유엔청사가 미국땅에 있다고 하여 유엔이 곧 미국의 유엔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그런데 미국은 유엔을 마치 저들의 산하기관처럼 여기면서 마구 주무르며 《세계경찰관》행세를 하고있다.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저들이 하는것을 다른 나라들이 하면 안된다는 강도적론리로 주권국가들의 합법적권리와 정정당당한 자주권행사까지 문제시하고있다. 이에 반기를 들거나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불량배국가》, 《국제사회의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라는것을 조작하여 정치, 경제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있다. 백주에 국가지도자를 암살하거나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정권을 붕괴시키는것과 같은 날강도짓도 서슴지 않고있다.

문제는 명색이 국제적정의를 위한다고 하는 유엔이 특정한 나라들의 부당한 목적추구에 도용되고있다는데 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유엔에서의 부당한 《결의》조작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이 취하는 자위적조치들을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발》로 걸고들면서 우리를 최대로 압박해보려고 발광하였다. 그러나 유엔은 이러한 강권과 전횡에 대해서는 못 본척 하면서 오히려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제재결의》를 채택하는 놀음을 계속 벌려놓았다.

유엔의 이중기준행위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한 국제문제전문가는 《조선은 유엔의 현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진렬장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의 현실은 유엔에서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유엔을 더는 구원하기 어렵게 될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날의 유엔에는 정의라는것이 없다는것을 소경도 알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특정국가의 전횡과 독단이 판을 치고 이중기준이 공공연히 묵인, 허용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유엔은 유명무실한 기구로 완전히 굴러떨어지게 될것이며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세우는데도 지장을 주게 된다. 많은 유엔성원국들이 유엔개혁을 요구하여 투쟁하고있는것은 이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 이중기준과 부정의를 배격하고 반테로문제와 분쟁문제, 환경문제를 비롯한 국제문제들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

나라의 크기와 발전정도에 관계없이 국제정치분야에서 자주권과 평등권,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만이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질서가 수립될수 있다.

국제적정의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힘이 강해야 실현될수 있다.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힘에 의거하여 세계를 지배하려고 날뛰고있는 조건에서 그 어떤 리론이나 구걸로 자기를 지킬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국제무대에서 자기가 할 말도 못하고 강자들의 롱락물로 되며 정의와 량심도 지켜낼수 없게 된다.

힘을 키우고 강화하는것만이 지배주의세력과의 대결에서 이길수 있는 최선의 방도이다.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진보적나라들은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주의 새 세계를 앞당겨와야 할것이다.

리 현 도

#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처사

일본의 아베일당이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북남관계가 개선되고있는 속에 저들의 통치위기가 심화되어 안팎으로 곤경에 처하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더욱 극성을 부리고있다.

얼마전 아베패거리들은 남조선당국자에게 우리를 걸고들면서 《일본인랍치문제》를 다루어달라고 분수없이 놀아댔다. 그런가 하면 미국으로 날아간 외상 고노는 미국부대통령 펜스와 남조선외교부 장관 강경화를 만나 판에 박힌 반공화국대결망발을 줴치며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고 고아댔다. 한편 아베는 방위대학교졸업식에 나타나 그 누구의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확고한 립장》은 흔들리지 않을것이라고 가소롭게 놀아댔다. 그야말로 남을 물고늘어지며 제 리속을 채우는데 이골이 난 일본반동들만이 부릴수 있는 고약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아베일당의 언동은 우리를 걸고 궁지에서 벗어나보려는 간특한 속심의 발로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재침야망에 사로잡힌 아베패거리들은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헌법을 뜯어고쳐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발광하고있다. 군국주의부활에 환장한 일본반동들에게 있어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는 매우 달갑지 않은 일로 되고있다. 우리의 《위협》이라는것을 구실로 군국주의부활에 열을 올리며 재침야망을 실현하려는것이 섬나라족속들의 속심이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공격용잠수함 《세이류》호와 소해함 《히라도》호의 취역식을 벌려놓은데 이어 일본판해병대로 불리우는 수륙기동단을 3월중에 조작하려 하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군사대국화야망에 사로잡힌 일본반동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대화와 평화의 기운으로 저들의 흉계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자 극도로 불안초조하여 안절부절 못하고있다. 바빠맞은 일본반동들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을 끈질기게 여론화하며 그것을 빙자하고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하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제 비뚤 게 못 준다고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는것을 기를 쓰고 반대하면서 북남사이의 반목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미쳐날뛰는 치사스럽고 교활한 일본반동들의 못된 심보는 어디 갈데 없다. 우리 민족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만고죄악을 저지른 일본반동들이 그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기는 고사하고 우리를 걸고들며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는것은 실로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다.

아베일당이 반공화국대결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는데는 또 다른 음흉한 목적이 있다.

최근 아베는 모리또모학원문제를 비롯한 특대형부정추문사건으로 또다시 막다른 처지에 빠져 말그대로 사퇴직전에 놓여있다. 추악한 정치간상배의 몰골을 드러낸 아베의 망동에 격분한 일본의 각계층 인민들은 도처에서 《거짓말쟁이내각에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아베정치를 용서치 말자.》, 《퇴진하라.》고 웨치면서 반정부투쟁을 벌리고있다.

바빠맞은 아베일당은 저들에게 쏠리는 분노의 눈초리를 딴데로 돌리고 집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랍치문제》니, 《최대의 압력》이니 하고 고아대며 우리를 마구 걸고드는것으로 저들의 숨통을 열어보려고 몸부림치며 놀아대고있는것이다. 아베패거리들이야말로 저들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순한 망동도 서슴지 않는 사악한 무리이다.

허욕에 들뜨면 한치앞도 못 보는 법이다.

아베일당이 남조선당국과 미국것들에게 쫄라닥질을 해대며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훼방질을 하고 조선반도문제에 끼여들려고 헤덤비고있지만 그것은 대세의 흐름도 분간하지 못하는 아둔한것이다. 현정세흐름이 누구에 의해 마련되였는지도 모르고 제재압박에 대해 고아대는 아베일당은 저들의 대결망동이 고립과 자멸을 더욱더 앞당기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일본반동들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집요하게 매달릴수록 내외의 더 큰 비난과 조소를 불러일으킬뿐이다.

대세에 역행하며 대결에 미쳐날뛰는자들은 영원히 평양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것이다.

라 설 하

# 주제넘게 놀아대고있는 전범국가

유엔인권리사회 제37차회의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되였다.

이 회의장에서 일본이 반공화국《인권》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렸다.

제네바주재 일본부대표는 우리 공화국이 《인권을 무시하고있다.》고 떠들어대면서 《북조선인권결의안》초안을 유엔인권리사회에 제출하는 망동을 부렸다.

유엔무대에서 일본이 반공화국《인권》소동을 일으킨적은 한두번이 아니다. 우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국제화하기 위해서였다.

거듭되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일본특유의 철면피성과 간특성의 발로이다.

일본은 특대형반인륜범죄인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안고있다. 아베패당은 일본군이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증거가 없다느니, 그 녀성들은 《매춘부》라느니 하는 악설들을 늘어놓으며 성노예범죄를 부정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유엔녀성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62차회의에서도 일본대표단은 20만명이라는 성노예수자는 근거가 없는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면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했다는 망발을 줴치며 성노예범죄를 덮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댔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일본이 그토록 악을 쓰지만 과거에 저지른 성노예범죄의 진상은 계속 드러나고있다.

지난해에만도 일제가 감행한 성노예범죄증거자료들이 여러차례나 발굴되였다.

얼마전에는 1944년 9월 일제침략군이 중국 운남성에 성노예로 끌어갔던 수십명의 조선녀성들을 학살한 현장을 촬영한 영상자료가 공개되였다.

세상사람들이 경악을 표시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제야말로 인두겁을 쓴 야수,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라고 하면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급해맞은 아베패당은 궁지에서 벗어나보려고 어처구니없는 《인권》소동을 피우고있다.

남에게 허무니없는 혐의를 뒤집어씌운다고 하여 일본의 특대형반인륜범죄가 가벼워질수 없다.

일본은 우리 조선과 성노예피해자들에 대해 응당한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유엔인권리사회에 과거의 성노예범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자백서를 내놓아야 한다.

우리 공화국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국제화해보려는것은 너무도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행위이다.

심각한 인권문제는 다름아닌 일본에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끔찍한 살인행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다.

어머니가 젖먹이의 시체를 려행용가방에 넣어 내버린것, 아버지가 태여난지 2개월밖에 안되는 딸을 주먹으로 때려죽인것, 안해가 남편을 목졸라죽인것, 몸이 토막난 녀성의 시체가 발견된것, 한가족 3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것 등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사건들이 련속 발생하고있다. 로인들과 장애자들을 학대하는 사건들도 부지기수이다.

이런 끔찍한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는것은 일본이야말로 인권불모지, 인간생지옥이라는것을 실증해준다.

아베패당이 인간증오사상이 꽉 들어차고 변태적인 생활방식이 판을 치는 썩고 병든 렬도, 정신적타락과 범죄가 만연하는 반인민적인 저들의 사회제도를 정돈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을 시비질하는것은 너무도 황당하고 분수없는짓이다.

전범국인 일본은 지저분한 제코나 씻어야 한다.

김 신 혁

# 특등범죄자의 철면피한 추태

리명박역도가 자기의 온갖 범죄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실로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어 각계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이미전부터 《나의것이 아니다.》느니, 《내가 지시한적도 없고 보고받은것도 없다.》느니, 《처음 듣는 소리》라느니 하는 궤변들을 늘어놓으며 자기의 특대형범죄행위들을 한사코 부정해온 리명박역도는 얼마전에 진행된 검찰소환조사에서도 정보원특수활동비횡령사건과 다스회사실소유자의혹사건 등과 관련한 20여가지의 각종 범죄혐의들에 대해 시종일관 《모르는 일》이라고 뻗대면서 모든 책임을 측근들에게 넘겨씌웠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과 단체, 인민들은 《참으로 뻔뻔하다.》, 《민중여론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변하였다.》,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죄까지 합쳐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격분을 터치였다. 《바른미래당》까지도 측근들이 범죄사실들을 다 털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있다고 리명박역도를 비난하였다. 리명박역도를 구속하여 력사의 심판대우에 올려세우고 준엄한 징벌을 가할데 대한 민심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 속에 지난 19일 역도에 대한 구속명장이 청구되고 이어 23일 희세의 도적왕초는 드디여 감옥으로 끌려갔다.

리명박역도가 이번 검찰소환조사에서 자기의 특대형범죄행위들을 전면부정하며 오만하게 놀아댄것은 전대미문의 대죄악을 저지르고도 죄를만 한 죄의식도 느낄줄 모르는 역도의 추악한 본색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리명박역도의 망동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해보려는 파렴치한 추태로서 남조선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리명박이 저지른 죄악들은 역도의 손발노릇을 하던 측근들의 자백과 론박할수 없는 증거자료들로 하여 명명백백하게 확증되였다. 전 청와대총무기획관 김백준이 정보원으로부터 4억원이상의 특수활동비를 넘겨받아 역도에게 전달한 사실과 리명박이 《당선축하금》의 명목으로 거액의 뢰물을 받아먹은 사실, 역도가 12년간에 걸쳐 다스회사를 운영하면서 3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의 비밀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사실 등의 죄상들은 이미 검찰당국의 조사와 리명박역도의 측근들, 여러 기업가들의 진술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리명박이 권력을 휘두르며 감행한 특대형범죄사건들에는 역도의 녀편네는 물론 아들과 사위, 형을 비롯한 일가족속전원이 련루되어있다. 그 진상이 계속 폭로되는데 바빠맞은 리명박의 사위는 오금이 저린 나머지 기업가들로부터 5억원의 뢰물을 받아 역도의 녀편네에게 전달한 사실과 관련한 자백서를 검찰당국에 써바치는 희극을 연출하였다.

리명박역도가 아무리 뻗대여도 소용이 없다.

얼마전 리명박의 《금고지기》,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청계재단 사무국장 리병모가 역도로부터 넘겨받아 관리하던 어느 한 건물에서 이전 청와대문건들이 수많이 발견되였다. 리명박의 《지하대형금고》, 《비밀자금저수지》로 알려진 이 건물에서 발견된 문건들에는 역도가 다스회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350억원에 달하는 비밀자금을 조성하였으며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였는가 하는 내용, 리명박이 삼성그룹으로부터 68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소송비의 명목으로 받아먹은 내용, 리명박역도가 퇴임후 다스회사를 다시 장악하고 비밀자금을 조성할것을 계획한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여있다고 한다.

검찰당국이 이처럼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작성한 리명박역도의 범죄자료문서는 박근혜의 2배이상에 달하고 그와 관련한 해설문은 무려 1 000페지에 이른다고 한다. 이 한가지 사실만 놓고도 역도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엄청난것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상통을 쳐들고 아무런 죄도 없다고 우겨대는 리명박역도야말로 고간을 통채로 털어내고도 징벌을 모면해보려고 눈알을 굴리는 쥐새끼, 우화속의 큰쥐와 다를바 없는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죄행들만 가지고도 리명박역도는 가장 엄한 형벌을 면할수 없다.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못된짓을 다 한 만고역적의 죄악은 통지처참해도 시원치 않을 특대형범죄이다.

문제는 홍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리명박에 대한 검찰수사와 구속을 놓고 《잔인한 정치보복》이라느니, 《어느때든 대가를 치를것》이라느니 하고 악을 써대고있는것이다. 이것이 죄지은자들이 뒤가 켕겨 하는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리명박의 범죄사건들과 관련하여 《이제 남은것은 BBK가짜편지사건이다.》, 《이 가짜편지를 흔든 사람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이다.》라고 하면서 역도의 대표적인 부정부패사건인 BBK주가조작사건의 진상을 덮어버리기 위해 홍준표를 비롯한 보수세력이 벌린 음모책동의 내막을 파헤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비난의 화살이 저들에게로 쏠리는데 바빠난 홍준표일당은 현 당국이 리명박역도의 범죄사건들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혐의사실을 류포》시켰다느니,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했다느니 하고 고아대면서 심판의 과녁에서 벗어나보려고 교활하게 놀아대고있다. 그러나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한몸통이 되어 온갖 특대형범죄행위들을 저지른 공범자무리인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철면피한 술책은 통할수 없다.

리명박역도는 자기가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들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하며 역도를 비호두둔하며 민심의 적폐청산기운에 도전해나서는 반역당무리들도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 안보위기를 몰아온 장본인의 추악한 정체

지금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안보》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요란하게 광고하며 저들을 《안보세력》으로 둔갑시키려고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그것이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돌아선 민심을 꼬드겨 지지표를 긁어모으려는 술책이라는것은 명백하다.

외세와 작당하여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뜨리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고조시켜 극도의 안보위기를 조성한 장본인들이 그 용납 못할 죄악에 대한 죄를만 한 반성은 없이 마치도 저들이 《안보정당》인듯이 냄새를 피우면서 민심을 얼려넘기려고 너살스럽게 놀아대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이다.

《자유한국당》은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에 사로잡혀 외세를 등에 업고 북남대결을 일삼으면서 겨레의 머리우에 전쟁의 검은구름을 짙게 몰아온 위험한 평화파괴세력, 호전광무리이다.

돌이켜보면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외세의 사타구니에 붙어 기생하면서 그의 반통일책동에 적극 추종하고 동족대결에 열을 올린 보수역적패당의 집권 9년간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지고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항시적인 긴장국면이 조성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보수패당은 집권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고아대면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들을 부정하고 좋게 진행되어오던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았다.

남조선보수패거리들이 모략적인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북남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민간단체들사이의 래왕과 접촉마저도 차단한것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

이처럼 북남관계를 대화도 협력도 없는 전면폐쇄상태에 몰아넣고도 그것을 《제대로 된 남북관계》로 미화하면서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들을 반통일적망발과 동족대결책동의 강화로 여지없이 망쳐놓은자들이 바로 남조선보수패당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의 대결망동이 북남사이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고조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보수패당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걸고드는 특대형도발행위들을 꺼리낌없이 감행하면서 가뜩이나 첨예한 북남사이의 대결과 긴장상태를 더한층 격화시키였다.

한편 《군사적우세》로 그 누구를 《압박》해야 한다고 고아대면서 해마다 《국방예산》을 증가시키고 해외로부터 비행기, 미싸일을 비롯한 공격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무력증강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미국상전과 야합하여 《싸드》를 끌어들임으로써 남조선을 주변대국들의 패권다툼을 위한 각축전장으로 전락시키였다.

보수패당의 이러한 망동은 남조선의 안보위기를 고조시킨 요인으로 되였다.

한줌도 안되는 남조선의 보수역적패당때문에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지고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지속되여온것은 실로 통탄할노릇이다. 남조선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비롯한 각종 전쟁장비들을 닥치는대로 끌어들이면서 동족을 해치기 위한 군사적대결소동에 광분해온 보수패거리들이야말로 저들의 반민족적흉계를 실현하기 위해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온 안보무능세력, 안보불안세력이다.

외세를 등에 업고 온갖 반역적죄악을 다 저질러온것으로 하여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보수패당이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권력의 자리를 타고앉으려고 발악하는것은 매우 엄중한 사태가 아닐수 없다. 이자들은 어떻게 하나 권력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동족대결정책에 계속 매달리려 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것을 절대 용납치 않을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수패당이 살판치는 한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념원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목숨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하기에 그들은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길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대결책동에 열을 올리는 보수패당을 력사의 무덤속에 모조리 처넣는데 있다고 한목소리로 웨치고있다.

본사기자 엄 수 련

#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로씨야외교관추방소동

## 로씨야정부 대응조치를 경고

최근 영국에서 독성화학물질에 의한 로씨야간첩암살미수사건이 발생한것을 기화로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반로씨야대결분위기가 극적으로 고조되고있는 속에 로씨야외교관추방소동이 일제히 벌어지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영국특수기관을 위한 간첩죄로 로씨야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로씨야정찰총국 군관 세르게이 스크리빨과 그의 딸이 얼마전 영국의 쏠즈버리시에서 독성화학물질에 중독되여 의식을 잃은채 발견되였다.

영국정부는 사건의 책임이 로씨야에 있다고 완강히 주장하고있으며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이에 극구 응수해나서고있다.

지난 14일 영국정부는 23명의 로씨야외교관을 추방하며 두 나라사이의 고위급 쌍무접촉을 중단한다는데 대해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영국에 이어 미국과 나토, 유럽동맹 성원국들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로씨야외교관추방조치를 발표하였다.

27일현재 20여개 나라가 로씨야외교관들을 추방한다고 선포하였다.

미국은 자국에서 활동하던 로씨야외교관, 정보관계자 60명에 한하여 1주일내로 미국을 떠나도록 하는 한편 시애틀주재 로씨야령사관을 폐쇄하였다.

엄중한 사태가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로씨야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자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들에 대응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로씨야대통령공보관은 기자회견에서 외무성이 대응조치와 관련한 제의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것이라고 하면서 로씨야는 독성화학물질중독사건과 아무런 련관도 없다, 물론 우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호상성의 원칙을 따를것이다고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세계의 이모저모

## 이란 미싸일계획과 관련한 유럽의 태도에 경고

이란국회 의장 알리 라리자니가 얼마전 이란의 미싸일계획과 관련한 유럽나라들의 태도에 경고를 보내였다.

일부 유럽나라들이 이란의 미싸일계획에 우려하는 리유에 대해 반문하면서 그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은 30년전부터 미싸일기술을 소유하고있지만 다른 나라에 단 한기의 미싸일도 발사한적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군사력을 강화해나갈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유럽나라들이 핵합의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리행해나가도록 미국에 압력을 가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이란국가최고안전리사회 서기장은 핵합의문제와 관련하여 유럽나라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손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미국 라뜨비야에 레이다 납입

얼마전 미국의 대규모군수업체의 하나인 록키드 마틴회사가 라뜨비야와의 납입계약에 따른 3개의 레이다중 첫번째 레이다의 납입을 끝냈다고 발표하였다.

2015년의 계약에 따라 막대한 액수로 라뜨비야에 납입된 레이다는 미국의 다목적레이다 《TPS－77》이다. 회사는 이 레이다가 라뜨비야공군의 지공비행감시 및 확인능력을 높여줄것이라고 하면서 마치도 이번 납입이 이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주요한 조치로 되는것처럼 묘사하였다.

나토성원국인 라뜨비야를 상대로 저들의 레이다를 팔아먹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지난 16년동안 계속되여오고있다.

## 이스라엘군 시위진압에 무인기 사용

최근 이스라엘군이 시위진압에 무인기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스라엘신문 《하아레츠》가 이에 대해 보도하였다.

가자지대의 팔레스티나인 약 200명이 이스라엘과의 경계지역에서 시위투쟁을 벌렸는데 이때 이스라엘군은 시위군중을 해산하려고 무인기로 최루가스를 살포했다고 한다.

신문은 팔레스티나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진압작전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며 아직 시험적단계에 불과하다고 전하였다.

이스라엘군은 앞으로 시위진압에 무인기를 보다 광범히 사용하려는 흉심을 드러내놓고있다.

본사기자

# 지구온난화에 의한 세계적인 경제손실

세계기상기구가 22일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경제적손실액이 3 200억US$로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특히 미국과 까리브해나라들을 휩쓴 거대한 폭풍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였다고 한다.

기구는 2017년의 세계평균기온이 산업혁명전에 비해 1.1℃ 상승하였으며 2015년부터 3년련속 고온을 기록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바다물면의 상승과 바다얼음면적의 감소, 바다물의 산성화에로도 이어져 폭풍과 큰물 등의 기상재해를 일으키고있다고 주장하였다.

# 로씨야의 께메로보시에서 화재사고

로씨야의 께메로보시에 있는 한 상업쎈터에서 25일 화재가 일어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로 26일현재 64명이 목숨을 잃고 5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16명이 행방불명되였다고 한다.

정부가 께메로보주에 비상사태를 실시하고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대책을 시급히 취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방조를 줄것을 해당 기관에 지시하였다.

주에서 27일부터 3일간을 애도기간으로 선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81050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